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3년 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98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李世震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702-2233·FAX: 703-0755



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酉山 閔庚甲 作「祥」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鄭珉鎬 광고부장 金千鶴

신년사

당당한 서울大人像

다함께 구축해 나갑시다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회장

敬愛하는 서울大 同門과 家族 여러분!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20萬 同門의 家庭마다 萬福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成就와 보람 거두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母校 總長에 鄭雲燦 博士가 就任함으로 해서 變化와 改革을 통한 發展基盤이 새로이 닦인 해입니다.

또 同窓會는 19代 會長團의 出帆으로 同門社會의 結束을 다지면서 母校發展 支援力量을 強化해온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變化와 發展은 서울大人들의 폭넓은 關心과 활발한 參與가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으며, 學校 教職員은 勿論, 同窓會 任員陣을 비롯한 各界 同門들의 애정어린 聲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生覺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는 20萬 同門을 비롯해 國民들이 서울大와 서울大人에 거는 期待와 要求에 最大한 副應할 수 있도록 無限한 責任感을 가지고 母校와 祖國의 發展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모토를 中心으로 모인 서울大人입니다.

開校 草創期에 萬難을 무릅쓰고 解放祖國의 建設을 위해 우리가 오로지 忍耐와 協同만으로 荒蕪地 위에 오늘의 서울大를 이룬 것처럼, 統一祖國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非常한 覺悟로 서울大를 世界의 名門大로 우뚝 세우기 위해 倍前의 努力으로 挑戰하고 또 挑戰할 때가 왔음을 銘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分野에서 最高의 專門能力, 健康한 職業倫理意識, 世界化·情報化 時代를 리드할 수 있는 유연

한 思考, 어떠한 한 狀況도 突破할 수 있는 實踐力을 두루 갖출 人材를 養成하면서, 道德적으로 正當하고 堂堂한 서울大人像을 다함께 構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서울大人답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祖國의 未來를 設計하며, 國民의 꿈과 希望을 具現하는 道德的 責任을 自覺하십시오.

아무쪼록 急變하는 對內外 狀況 속에서 서울大人으로서의 矜持를 지켜 나갑시다.

더불어 率先垂範함으로써 보다 正直하고 透明한 組織文化를 만들어 나가며, 地域社會等 이웃에 대한 社會寄與와 奉仕活動도 변함없이, 그리고 조용히 實踐하는 成熟한 서울大人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저 역시 同窓會長으로서 우리의 母校 서울大가 永遠하고, 나날이 發展하여 온 國民의 眞正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渾身の 熱과 誠을 다 할 것입니다.

敬愛하는 同門들의 健勝을 거듭 祈願하면서 새해인사에 거듭합니다.

感謝합니다.



시대 변화 맞춰

자기혁신의 노력 다할 때

서울대학교 鄭雲燦총장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누리에 희망의 빛이 가득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 업무를 익히고 주위의 건의와 조언을 경청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업무가 익숙해질수록 우리 학교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조직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동료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사회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올해 안으로는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수아파트 확충도 계획이 거의 선 단계이므로 곧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BIO-MAX사업과 한국학연구, 통일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도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걸맞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교육과 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과 보직자들은 이들이 다른 불편 없이 오직 연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세를 다 시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미

년 새해는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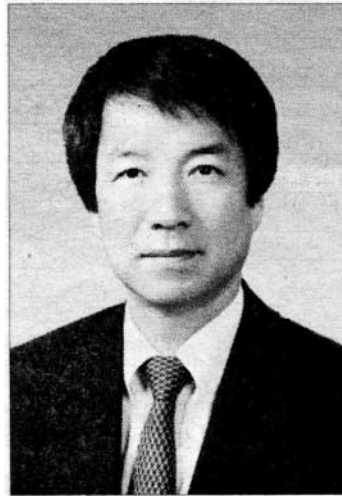
어떤 일들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또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를 구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하나씩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도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목은해를 넘기고 대망의 2003년을 여는 신선한 아침입니다. 더욱 힘차고, 더욱 부지런히 분발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를 세계 으뜸의 대학으로 키워나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관악춘추

올해는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선거 결과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교 평준화를 체험하기 시작한 45세 유권자들을 분기점으로 해서 두 후보간의 지지성향이 확연히 구분되었기에 새 대통령은 평준화 세대가 탄생시킨 대통령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엘리트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라고 보기도 한다.

경제권력을 가진 계급이 권력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계급이론이라면 각계각층에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엘리트 이론이다. 엘리트주의는 바로 엘리트 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엘리트들의 지배를 당연시하며 당위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력을 가진 자들의 지배를 당연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진 엘리트들의 권력과 지배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또한 대중사회에 들어선 시대에 엘리트주의란 사실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혼돈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엘리트주의는 배격하더라도 엘리트를 배격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엘리트란 원래 어떤 집단 내에서 남보다 나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 엘리트란 어느 사회, 어느 집단 내에서도 있게 마련이고 사회는 그들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에도 박세리, 박찬호같은 엘리트들이 있고 재계에는 김영모, 예술의 세계에는 조수미와 이미자도 있다. 과학이나 의학의 세계에도 그런 엘리트들은 있다.

그들이 있기에 인간 능력은 확장되고 삶의 질은 개

참다운 엘리트 교육

선될 수 있다. 그렇다고 엘리트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도 아니다. 다 각기 나름대로의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기에 모든살이의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다.

서울대는 우수한 공부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엘리트 교육기관이다. 배출된 인재들이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엘리트로서 기여

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들이 그 능력을 발미로 지배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도 안되겠지만 그런 자질이 경시되고 부정된다해도 나라의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기업체에 들어간 서울대 출신들은 조직사회에 적응력이 약하고 남과 어울릴 줄 모르며 이기적이라서 기업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런 기업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요즈음은 튀는 젊은이들이 문화시대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기업들도 유연해지지 않았는가? 서울대 출신들의 결점만 탓하기 전에 사회도 그들을 엘리트답게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는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참다운 엘리트로서 교육할 것인가,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고 빛나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야 한다.

동창회는 우리 사회가 그런 인재들을 제대로 수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珍)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학문의 기본은 철학이다』

학문에 뜻을 두었던 학생 시절에 스승들에게서 수 없이 들었던 말이다. 그때 그 어른들은 우리 나라의 학문을 세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시던 분들이다. 그 중 한 분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하게 남아 있다. 『아무나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해방 뒤에 별로 공부도 하지 못한 채 교수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참으로 깊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이 교수가 될 것이다』

왜 갑자기 위와 같은 말씀들이 떠올려지는가? 그것은 근래의 대학의 난리에 충격을 받은 데 있다. 돌아보면 철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은 커녕 학문 자체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수나 총장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남용되고 있다. 대학교라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유니버시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역사를 보면, 초기의 유럽 대학들은 분명히 학문 위주였으며, 예술이나 직업 교육은 대체로 대학 밖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의 기술계 학교들이 공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어 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한 대학들은 처음부터 학문, 예술, 직업교육을 묶어서 운영하면서도 인문·사회·자연과학 부분의 기초교육과 학문 연구를 강조하는 문리과대학을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직업학교들이 고유의 이름을 지닌 채 종합대학으로 바뀐 예도 많다. 이처럼 나라마다 경우에 따라 대학의 면모를 조금씩 달리하지만, 전통적인 대학이 학문 연마의 목적을 저버리지는 않으며, 외국의 경우 학문의 기본인 철학을 필수 교양으로 강조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급격한 근대화, 산업



드리프트광장

학문하는 대학, 철학있는 학문



朴世熙
모교 자연대 명예교수

화, 세계화에 따르는 고등교육의 갑작스런 팽창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대학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새 대학들은 전통적인 학문 위주의 대학들과는 달리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나머지, 학문이 아닌 특수한 직종의 기능을 교육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한때 유행하던 타자, 속기, 요리, 복장, 기술 등의 학원들과 같은 내용의 것들이 버젓이 대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학문을 제대로 닦은 인문·사회·기초과학계의 젊은 학자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대학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차세대의 학문을 할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근래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고학력화와 취업난이 대학의 왜곡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의 기피 현상은 국가 장래의 큰 위험요소이다. 철학의 경우와 같이, 수학이나 물리학을 가르치지 않는 공과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대학졸업생이 단순 기능의 직종에 종사할 정도로 되어 가는 현실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대학의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 세계화주의자들의 음모라는 설도 있다. 입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서, 특정 대학을 없애자던가, 대학을 평준화하자 등의 무책임한 말도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나라에 국제적인 초일류 기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바라건대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초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심오한 학문이 연마되고, 그것이 민족의 자산으로 꽃피어나고 전승되는, 고등한 문화국가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엘리트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다. 그래서 어떤 노교수가 말했다. 『이제야말로 서울대학교는 「실학」보다도 「허학」에 좀 더 전념해야 할 때이다』

동문칼럼

역사로 본 「치과의사학」의 필요성

신라 2대 임금 남해왕에게는 노례라는 아들이 있었다. 남해왕이 죽자 왕위는 마땅히 아들인 노례가 이어받게 되어 있었으나 노례는 왕위를 사양했다. 당시 석탈해는 「대보」라는 직위에 있었다. 대보는 신라 초기 최고위 관직이고 재상과 같은 지금의 국무총리 비슷한 직무를 보았다. 본시 어질며 부지런하고 덕망이 높은 노례는 신라가 크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배부 탈해가 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해는 완곡히 거절을 했지만 노례의 의지 또한 강했다. 이에 탈해는 노례에게 『옛부터 거룩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누가 많은지 알아보기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탈해는 미리 준비시킨 떡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떡을 한 입씩 물어뜯어 보기로 합시다. 그 떡에 이 자국이 날터이고 이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로 할 것을 약속하시지요』 노례와 탈해는 각자 떡을 깨물었고 그 결과 노례가 임금이 됐으니 그가 신라 제3대 유리왕이다.

유리왕은 두 왕자를 두고 있었으나 왕위를 탈해에게 계승시킬 것을 유언했다. 이에 제4대 임금으로 23년간 선정을 베푼 탈해는 다시 유리왕의 태자에게 왕위를 되돌렸으니 그가 제5대 파사왕이다.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과는 동떨어진 정치적·인간적인 면을 보여준 것이다.

평계이긴 했지만 왕위와 치아를 조건으로 했다는 점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치아의 중요성, 특히 심미성과咀嚼기능을 강조한 역사적 사실이 건강과 치아로 표방된 대형사건이다.

탈해 齒叱今, 尼叱今, 尼師今은 잇금·임금을 이르는 말이다. 비록

당시 이두와 오늘의 한글과 그 뜻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가 「잇금」과 「임금」 그리고 「王」이나 「King」으로 표현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2002년은 우리 나라가 월드컵 4강을 이룬 해로 기록되고, 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후보가 당선된 것이 제일 큰 뉴스인 것이다.

그런데 필자에게 가장 큰 뉴스와 사건은 바로 「신라의 건치왕 발표」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회의 학술대회와 11월 모교 치대에서 열린 제1회 기초치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국제학술대회의 제목이 「한중일 치의학교류」인 탓에 슬라이드로 「Teeth is king and/or king is teeth」라고 한 줄 비추었다. 기초치의학회에서는 「삼국유사와 신라 초기의 이(齒) 관련 기록들」이라는 연제로 비교적 소상히 발표했다.

치과의사학이 동서고금의 의학, 철학, 고고학, 인류학, 사회학, 사학 등을 넘나드는 것이어서 필자 같은 몇몇 개원의들이 힘쓰는 것보다 국책, 국립대학이 나서서 필자 같은 생각을 가진 후학들을 빨리 키워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다.

그 아쉬움을 끌어안은 채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보냈다.



李丙台

(67년 齒大卒)

이병태치과 원장·
월간 치과연구 편집인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林회장 “동창회관 신관부지 검토 제안” 鄭부총장 “강남순환도로 대책위 구성”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6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孔大植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등 동창회 임원과 동창회보 朴世熙·林炯斗·南仲九·李炯均·金好俊·安炳燦·李慶衡·安國正·金仁圭·徐玉植·朴時龍·朴聖姬논설위원, 관악인론인회 曹秉喆·李昌炫간사위원, 모교 鄭明熙부총장, 黃俊淵학생처장, 대학신문 裴永洙주간 등이 참석했다.

林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모토가 20만 서울대 동문의 정서와 심금에 자리잡아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서울대인의 네트워크 작동과 활용에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모교와 동창회의 유기적 협력과 발전을 위해 모교측에서 동창회관 신관건립을 위한 부지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동창회관은 단순히 동문들의 사랑방으로서만 이용되는 물적 공간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과 학외 동문들의 유기적 결속공간으로서, 또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를 그 본질로 하는 학교의 교육 문화공간으로서, 나아가 서울대인의 지성과 명예의 전당으로 자리잡아야 하기에 신관 건립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 달라』고 덧붙였다.

孔大植부회장은 『최근 동창회관 신관 건립과 관련해 모교 관악캠퍼스내 교수회관과 낙성대 부근의 부지를 조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모교 鄭雲燦총장을 대신해 鄭明熙부총장은 『최근 모교가 지역활당제 도입, 학생복지시설 증원, 교직원 및 신입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학문 및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구상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전담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허물없이 기릴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동창회이며, 특히 동창회보는 모교 발전을 위한 조언과 미담, 상호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朴世熙논설위원의 건배제의에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는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명의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 孫一根상임부회장이 KBS 金仁圭뉴미디어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특별히 (주)한우리정보 인쇄와 진행하고 있는 동창회보 지령 3백호 기념 PDF방식 CD-ROM 시연회를 가졌다.

3만부를 제작해 3월 정기총회부터 선보이게 될 CD-ROM

TITLE(2장 1세트)은 창간호부터 3백호까지의 내용을 칼럼, 성명, 단어 등으로 검색하고 인쇄할 수 있다.

재단법인 관악회 85차 이사회

특지·기금 장학회 대표 초청 모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23일 태평로 용수산에서 제85차 이사회를 개최,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02년 목적사업인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의 결과, 재학생 3백1명에게 5억3천3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고를 듣고 2003년 장학사업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2002년 장학사업 규모는 연평균 5%내외의 기금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약 1백20억원이 있어야만 충당이 가능한데 50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현재 상태로는 과도한 장학사업이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2003년 목적사업의 예산을 연 5억원으로 편성할 것을 의결했으며, 본회가 장기목표로 추진해온 「2002-111 비전 플랜」의 장학사업 목표인 재학생 1%(3백1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예산 편성액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짐으로 특지와 기금 장학회의 확충 노력과 함께 재학생 결연사업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논의했다.

또 목적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비용 절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이어진 특지·기금 장학회 대표 초청 송년모임에서

林光洙이사장은 『교육에 투자하는 길이 국가장래의 백년을 내다본다는 말처럼 오늘 자리에 같이 하신 관악회 임원과 특지·기금 장학회 대표께서는 주위의 가족, 동문 선후배들에게 장학사업의 좋은 뜻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동참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금 수입이 자원의 저급리로 인해 장학금 지급에 애로가 있음을 공감하고, 차후 운용수익보다 장학금 지급액이 많아져 기본금이 잠식될 경우, 대표자들의 의함에 따라 장학규모의 축소, 기금의 추가납입 등으로 장학사업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이사장, 洪性大상임이사, 孫一根·明泰鉉·朴明潤·鄭八道·金秉順이사, 朴英俊감사,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우드워드 李海遠회장, 金鍾祺 前인제고교 교장, 대영테크시스템 孔大植대표,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이사장, 화성프랜트 朴德七대표, 인터비즈시스템 禹仁性대표, 경희대 金秀子교수, 부평문화재단 李道卿이사장 내외, 李元珪 前산립청 임업연구원 과장, 郭東憲변호사, (주)일성 이선향 고문, 李慈偉 여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表)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2003년 1월 31일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3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미술작품

閔 庚 甲 作

〈작가약력〉

- ▲57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69년 쌍파울로 비엔날레 한국대 표작가 참가
- ▲72~79년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88년 서울올림픽 세계현대미술제 운영위원 및 초대출품
- ▲88~89년 서울시 예술위원
- ▲96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 ▲98년 원광대 미대 교수 정년퇴임
- ▲01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
- ▲02년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기념전 「한민족의 빛과 색」전 초대, 대한민국 은관 문화훈장 수훈, 프랑스 파리 UNESCO초대 개인전, 한·일 현대미술전 (일본 요코하마 전 및 서울전) 초대
-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재단법인 동양문화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휘문익숙 이사



「祥」, 한지에 수묵채색, 30×42cm, 2003.

Noblesse
Oblige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崔毅八소장

외국인 노동자 대변하는 인권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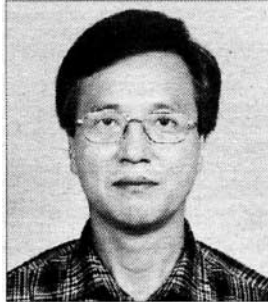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원활동가」입니다”

지난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 모든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중대한 날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날인 12월 18일을 대통령선거일 못지 않게 바쁘게 보낸 사람이 있다. 30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과 발이 돼주는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자 청암교회 목사인 崔毅八(70년 文理大卒) 동문이 그 주인공.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었던 지난 12월 18일. 기적적으로 2002년, 동티모르가 20번째 나라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오는 4월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보호가 국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崔동문은 지난 12월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외국인노동자로서 밴드활동을 하고 있는 「유레카」 단원들을 불러모아 한국에서의 삶의 애환 및 그들의 진솔한 얘기가 담긴 음반 제작 발표회를 가졌으며, 5백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종로5가에서 종묘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중지 및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발벗고 나섰다.

시골서 자란 崔동문 역시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사람들의 삶은 어렵기 짝이 없었다. 중학교부터 홀로 서울로 유학 온 崔동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 및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농민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농민운동을 꿈꾸기도 했으나, 이러한 농촌문제가 사회 전체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바



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모교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됐다.

사실 목사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는

崔동문.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로 한 것은 독일어 원서를 가르쳐주시던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왕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처음 가졌던 꿈-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우기로 결심, 교회 연극무대에서 만난 부인 한국염(現청암교회 목사)씨와 함께 독일에서 신학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유학생생활은 무일푼 신세였다. 한국에서 마련한 부동산과 주식까지 모두 날렸던 터였다. 다행히 장학금을 받으며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앞둔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대학시절, 친구 몇명과 함께 창신동에 세운 자그마한 교회, 지금의 청암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이를 대신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창립한 멤버로서, 그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독일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창신동에 새 보금자리를 틀게 됐다.

서울 창신동, 청계천 주변 등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의 교인으로 있는 청암교회 역시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대신 부인 한국염 목사는 낮에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고, 주일이나 밤에는 崔동문과 함께 교인들과 밤을 새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일에 헌신했다.

그러던 중 90년대부터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봉제 공장 등 3D업종이 집중돼 있는 창신동 및 그 주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목사에서 다시 외국인들의 참된 벗으로 또 다른 직분을 맡게 된 계기는 그의 교회에 당국으로부터 쫓기는 10여 명의 조선족들이 피신오면서부터. 희망과 꿈을 안고 찾아온 한국 땅에서 온갖 인권 탄압과 부당한 대우 및 인종차별을 겪은 이들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崔동문은 내 이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 1996년 청암교회 바로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해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라는 간판을 달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몇 년간 한국에서 거주한 덕분에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또 이 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스컴이나 유명 일간지가 아닌 외국인들의 입 소문으로 퍼지면서 노동자센터를 찾아와 도와달라는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30만여 명에 이릅니다. 비록 3D업종에 종사하지만 국내 경제발전엔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 주변의 공장들을 둘러보면

심중팔구 한국인 사장 내외와 외국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 이들을 모두 내쫓아버린다면, 수백 개의 한국인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텐데 왜 그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숙식 제공 및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근로자 및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여성 쉼터를 따로 마련해놓았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선한 이웃 클리닉을 통해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을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는 문화 탐방 여행을 기획하며, 외국인을 위한 의료공제조합을 조성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 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저는 봉사나 소외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주위의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원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崔동문은 오늘도 창신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웃의 고충을 대변해 주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 (表)



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자원활동가 및 외국인 이웃과 함께.

謹賀新年

癸未年 새해에도 倍前의 聲援과 鞭撻을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고 문
基成親主植基廈準院基泌鎬浩會三秀植淳燦洙根鎮
復埃道浚汶永相禮樂文鍾姬信平泳聖元在雲光一斗
閔金金朴蔡河金張白白金李姜具金李鄭金鄭林孫韓

명 예 회 장
회 상 임 부 회 장 장 장

부 회 장
李尹朴徐李李朴李金襄閔高李李趙張金鄭朴金李李金孔郭
洛煥容和熙連伯女植仁峻佑兌中煜龍炫澤實鎬俊器淑植駱
龍勳晟廷襄海熙吉貞命丙炳龍世南翼鎮宗煥宗丙金讚大永

부 회 장
孫安尹李吳沈許洪孫劉趙許李韓崔卞金金朴吳鄭李玄洪鄭
京秉世相仁利鎮性吉常炳永炯光秉柱學英容 大永在錫夢
植勳榮禹錫澤奎大丞夫祐燮均玉烈仙俊大晟明哲鐸賢炫準

부 회 장 鄭柳朴朱李 忠 英成世 始津俊民震

재단법인 관악회

<동창회 임원 겸임
동문은 중복을 피함>

이 사 明鄭張安金李李朴吳鄭金朴 泰哲世聖一龍鍾明星八秉柱 鉉圭一哲燮二基潤煥道順鐸

양띠 동문 10人의 新年 소망

감사와 근실한 자세로 여력 다할 터

申東完(31년생·54년 農大卒)농업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신미생 72세, 4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한 후 어느새 여섯 해를 맞게되면서 세월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희망이 무엇

이나고 소감을 쓰라니까 더더욱 빠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내온 70년의 생애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일제의 전제적 식민지 시대에 10대 소년기를 거쳐 해방 후 혼란과 6·25 동란을 겪고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20대 청년기이고, 두 번째는 26년간의 공무원 생활과 13년간의 대학교수를 지낸 정·장년기이며, 세 번째는 교수로 재직중인 91년부터 농업의 분야별 시험장장이나 연구소장을 지내다가 정년 퇴직한 전직 동료들 중심으로 농업연구 법인체를 설립하고 정부 기관 단체의 위촉과 지원을 받아 북한의 농업과 중국과 함께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 농업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노후생활의 단계입니다.

북한농업조사를 위해 지난 10년 14회 중국에 출장해, 압록강·두만강변을 답사해왔습니다. 지난 11년간 10권의 연구보고서와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60이 넘는 환갑노인이 희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이

윤택해져서 평균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한 건강을 밑천으로 하고 정부기관인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최근 정년퇴임한 아내와 더불어 92세의 모친을 모시고, 건실하게 국내외에서 자립해 살고 있는 3남매의 자녀와 다섯 명의 손자 손녀들의 어리광을 낙으로 하며 『더 늙기 전에...』를 모토로 새해에도 북한과 중국, 일본 농업의 오늘과 내일을 정밀조사 분석하는 용역연구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근실한 자세로 여력을 다하는 순박한 소망이 새해의 소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지 말았으면

李熙淑(43년생·65년 師大卒)서울교대 영어교육과 교수·시인



양들에 대한 양띠들의 감정은 미묘하다. 연민과 곤혹스러움, 절대 숭고미까지 느낀다. 유목민 문화권을 비롯해

다양한 종교에서 양은 무조건 희생제물이다.

20세기 미셸 세르(Michel Serres)는 『Hermes』에서 17세기 라 뽕텐느의 우화 「늑대와 양」을 들어 9가지 구조모델 중 편협한 지식과 뒤틀린 욕망의 조작이 의도적 정이나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얼마나 유효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늑대 논리에 의한 재판과정의 위장을 벗긴다.

『누가 감히 내가 마실 물을 흠탕으로 만들라고 너를 부추긴 거지?』 『어르신 노여움을 푸십시오. 목이 말라서 개울에서 물을 축인 것뿐입니다. 그것도 어르신보다 스무 발치나 아래에서요』 『네가 물을 더럽혔어. 작년에 나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 동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양띠 동문 10명에게 2003년에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들어보았다.

양의 심성으로 지혜로운 삶 살고파

李信子(31년생·55년 美大卒·미대동창회장)갤러리 우덕 고문



오고 있다.

올해는 해야할 일이 벅두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밀려오고 있다. 내가 일궈나가는 섬유미술의 전개 과정과 조형미술

로서의 특수성에 대한 집필을 마감하는 일, 평생을 해오고 있는 작업을 한자리에 모아 작품집을 발간해야하는 일과 출판전 그리고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일본에서의 한국의 미 보자기 전 등을 출품해야하는 일이 모두 상반기에 정해진 일정이다. 올해도 작년까지 바빠질 것 같다. 나이와 상관없이 작품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나를 보고 모두가 젊은 언니라고들 한다. 남성 후배들은 나를 가리켜 왕언니라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양띠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근면함과 노력, 성실함으로 잘 넘기고 살아 왔다.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양띠의 심성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양띠해 서울대 동문들 모두 건강하시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의욕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한해가 되시길 빈다.

앞으로 국가대사에 큰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싸움·갈등 버리고 헌신의 마음 갖자

閔泳澈(55년생·78년 自然大卒)

한국천문연구원 천파천문연구부 부장



그림지 않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부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에서 내가 맡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소망해보고 내 부서의 모든 부원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목표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새로이 합류하는 젊은 부원들을 볼 때마다 새삼스런 마음이 든다.

양의 모습은 싸움이나 갈등을 연상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양의 해인 새해에는 확신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됐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 이웃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남은 생, 나라의 은혜 보답하고 싶어

盧興圭(43년생·68년 醫大卒)

충남대병원 내과 교수



癸未年 새해가 밝았고 어느새 내 나이도 60, 환갑을 맞이하게 됐다. 인생의 한 주기를 다 지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환갑이 아닌가. 어찌 보면 덩으로 사는 시간이다. 나의 지난 60년을 돌이켜 보면 늘상 지나간 후에 후회하며 살아온 것 같다. 이제부터 덩의 인생이라고 생각돼 앞으로는 좀 더 나은 후회 없는 삶을 꾸려가자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하지만, 몸은 이미 늙었으니!

보잘것없이 지내온 나의 60년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경험도 있고 느낀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살아가는 지표로 삼고 나아가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주위를 위한 조그만 지렛대라도 되고 싶다.

우리 모교 동문들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만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자만과 이기심의 60년이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미약하나마 우리 사회라는 넓은 운동장에서 휴지 한 장이라도 좁고 잠초 한 뿌리라도 뽑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가치 있는 덩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성의 회복과 가치관의 정립으로 사람다운 존엄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교와 동문 여러분들께서 이 막중한 일을 이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훌륭한 선배님들, 지금 우리 나라를 떠받치고 가는 수많은 동문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후배 여러분들!

다함께 가장 올바른 길로 힘차게 뛰어갑시다. 모든 분들의 건승과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한다. 2003년은 양의 해라니 이제 내 나이가 48세가 된다.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을 생각하니 그보다 앞서 세월이 점점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과 함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짧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긴장감이 든다.

시간적으로 볼 때 양의 해라서 양이 주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가장 올바르게 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앞선다. 새해에는 점점 늘어나는 흰머리와 함께 내 마음속의 욕심을 하루하루 줄여나갔으면 좋겠고,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줄여나가 내 마음 속의 결집이나 장애로부터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

뒤돌아보고 남은 삶을 재구성하며

金玄淑(55년생·78년 音大卒)경원대 관현악과 교수



양들의 먹이인 풀들이 채 풍부하지 못한 이른 봄에 태어났고 이미 다섯 번째 양의 해가 다시 돌아왔다. 원래 양띠들은 온순하고 무난하다는 평을 듣고 있고 다만 이른봄에 태어난 양띠들은 조금은 외로울 수 있거나,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릴 적 귀동냥으로 들은 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문득 문득 한 적이 있다.

작년 초 TV의 모 CF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나 나름대로의 말도 안 되는 첫 방송을 보고는, 아니 부자가 되라고 되고, 부자 되지 말라고 안 된단 말이냐고 흥분하며, 그 선전문구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부자 되라는 말이 그렇게 삶에서 중요한 말인가? 이것도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직접 대놓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조금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가난한 것보다야 편리한 점이 많겠지만 과연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다섯 번째 양의 해를 맞는 수많은 양띠들은 가정이나 직장 또는 어떤 모임이나 학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다. 그리고 이

미 노안이 와있고, 흰머리가 생겨 염색도 시작했을 것이고 앞으로 살 날 보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을 동갑 양띠들에게 바란다.

부자보다는 남은 삶을 편안히 여유 있게 그리고 종착역을 향해 꾸준히 달려온 마라토너가 힘든 코스를 지난 후 한 번 숨을 다시 고르고 재충전해 종착역까지 뚝 수 있도록 한번쯤 뒤도 돌아보고, 남은 삶도 재구성해 보는 여유를 가져 보자고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의 위치에서 남은 삶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세요!

다양성 북돋우는 사회 소망한다

沈錫兌(67년생·92년 法大卒)SBS 보도본부 디지털뉴스팀 기자



참으로 일 많았던 한 해가 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앞으로도 여전히 큰 일이 많을 것이다. 벌써 북한

핵 문제라는 메가톤급 과제가 목전에 닥쳐 있다. 이런 과제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른 만큼 처방도 가지가지일 것이다. 결국 새해에도 우리 사회에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때문에 말도 많을 것이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는 섬뜩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조금만 더 관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의견의 다양성 속에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또 신선한 활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잠깐 돌아보자. 요즘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은연중에 그렇게 흘러간다.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냥 「틀린」 것으로

「왜 사냐 / 웃지요」라는 시구가 있다. 삶의 이유를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꿈」을 꾸는 재미로 산다고 말하겠다. 적지 않은 헛수를 살아오면서, 이런 꿈보다는 이루지 못한 꿈, 포기한 꿈이 더 많지만 나는 지금도 즐기차게 꿈을 꾸다.

특히 새해가 밝아오면 나의 꿈꾸기는 더욱 활기를 띤다. 올해에는 기필코 몸무게 5kg 감량에 성공하리라, 안 읽은 책 서가에 꽂아 놓은 책들을 읽으리라, 좋은 글을 써 보리라, 한참 동안 소식이 끊긴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리라 등

낙인을 찍어버린다.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낼 리가 없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각박해진 이유는 뭘까.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화목한 조화를 추구하기 보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 버리고, 서로에게 일사불란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사고방식에는 산업화 초기, 고도성장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닐까. 요즘 유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 그것은 사회 윤리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생산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다양성은 바로 창조력의 모태이니깐.

새해에는 다양한 「다름」 생각들이 무시되지 않고, 획일화보다 다양성을 북돋우는 사회를 소망해본다. 똑같은 생각만이 판치는 사회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는가. 새해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서로의 「다름」을 반갑고 너그럽게 맞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리 속에서 편안함을 구하기보다 「나는 다르다」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바란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은지라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소망을 갖게 되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한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진보적이라 평가되는 새 대통령에게 조금은 무리라고 할지도 모르는 소망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1년 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들처럼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지만, 먼저 걸어간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접받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현재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사람의 처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엔지니어이기를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엔지니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엔지니어의 일에

등 이제는 꽤나 현실적이고 소박한 것들이 꿈의 목록에 빼곡하게 들어선다. 이것들은 게을러지거나 안주하려는 내 어깨를 흔들며 깨우는 삶의 채찍, 활력소가 돼 줄 것이다.

그런데 2003년 새해를 맞는 나의 꿈은 조금은 특별한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향한 꿈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난개발」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곳이다. 건설업자와 관련 공무원의 야합 속에서 기반 시설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채 아파트만 가득한 기형의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의기투합, 인터넷 모임을 만들었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지역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나 역시 이 시민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제1의 고향이 될 이곳이 살맛 나는 고장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 꿈 하나가 새해를 맞는 나의 마음속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동창회보를 펼쳐보면, 우리 나라 최고를 자랑하는 대학의 출신자들답게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만한 인물들이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활약상으로 가득하다. 좋은 두뇌가 공동의 이익으로, 소외된 이들의 빛으로 환원되는 지점에 진정한 서울大人の 정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 새해의 동창회보에는 그런美談들이 더욱 가득차길 기대해본다.

엔지니어가 대접받는 사회 바라며

李東畝(79년생·02년 工大卒)

(주)STX 제품기획팀 주임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대 장학금 지원」같은 미봉책이 아닌, 뿌리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테크」라는 달콤한 이름에 현혹되는 문과출신 실무자가 아니라, 기계나 조선 같은 기간산업이 우리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잘 아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실무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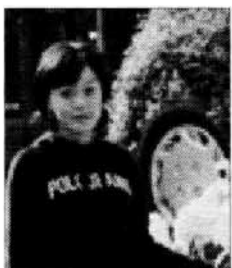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열심히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가 조금이나마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나처럼 공대로 가서 엔지니어가 돼보라고 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꿈 다시 찾는 시간 만들자

曹惠鉉(79년생·01년 社會大卒)

CJ 홈쇼핑 프로듀서



이제 내년이면 소위 꺾인다고들 말하는 스물 다섯 살이 된다. 어릴 적 생각했던 스물 다섯의 내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쿨한 것이었는데, 2003년의 첫 달을 맞는 지금 올해 나의 삶이 얼마나 빛나는 것일지 솔직히 자신할 수가 없다. 하지만 때와 같은 고마운 관습들은 12년마다 한번씩 올해는 나의 해라는 타이틀로 다시금 의기충전할 기회를 준다.

사실 꿈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듯 하다. 어렸을 때는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고,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내 꿈에 한 발 다가선 듯한 설렘과 자신감으로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는데, 직장을 1년쯤 다닌 지금은 내가 원해왔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쁘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즈음, 스물 다섯에 맞게 되는 양띠 해는 나의 길을 돌아보고 다시 나의 꿈을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아직까지 내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해 취직할 때까지 큰 고민 없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흘러온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일이 재미있고 적성에도 맞는 듯한 생각으로 만족할 만한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진정 모든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한 길이었을까 회의도 든다.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타이틀, 가족의 기대, 주위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그냥 조용히 한 때 호기심으로 기억한 권으로 몰아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어릴 때처럼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해, 그 꿈을 위해 작게나마 시작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건강을 지킵시다

술, 적당한 것이 좋다

연말 연시에는 평소 때보다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진다. 알코올은 소화가 되지 않는다.

위에 들어온 알코올 중 20%는 위벽을 통해 즉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천천히 흡수가 된다.

뇌는 혈액공급이 많기 때문에 즉시 영향을 받게 되며, 알코올은 대뇌 피질의 억제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뇌피질은 기능적으로 항진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면서 행동이 거칠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인남자의 7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5% 이상이 알코올 상습자이고, 적어도 1백60만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 상태이다.

술을 자주 접하는 문화 속에서 알코올 중독과 사교적 음주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릴 소인이 많은 사람이 술을 접하는 경험이 많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다.

적당한 음주는 간경변이나 간암발생을 유발하지 않으나 과도한 음주는 간손상을 가져온다.

알코올은 체내에 저장되지 못하고 대사되는데 대부분 간



金南元(84년 醫大卒)
김남원내과의원장

에서 이루어진다.

알코올 대사 결과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져 간에 축적이 되는데 이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한다.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은 마신 알코올의 양과 상관없이 있으며 술의 종류에는 무관하다.

대개 하루에 40~80g의 알코올은 매일 10년 이상 마실 때 알코올성 간질환이 올 수 있다.

만성 과다 음주자의 대부분은 지방간을 갖고 있으며, 알코올성 간염은 10~50%에서, 간경변은 8~20%에서 발생한다.

또 여자는 남자보다도 알코올에 더욱 취약하다.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끊고,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연락처 : 033-642-9155)

추억의窓

대학신문 기자 시절 4·19혁명 맞아 전방부대 방문 ... 밤 새워 술마시기도

潘永煥(62년 師大卒)한국문화재신문 사장

1960년 4월 19일, 이 날은 학생들의 힘으로, 또 민중의 힘으로 부정부패로 얼룩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날이다.

4·19 민주 학생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필자도 있었다. 재학중 군대에 갔다 오느라고 2년이 늦어져 4·19때 필자는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리고 대학신문의 영예로운 학생기자였었다.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권이 수립된 후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했다. 매일같이 데모가 벌어지고 수년간 억눌렸던 민중의 에너지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을 때 서울대 학생들은 두 가지 운동을 시작했다. 하나는 사회정화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갯벌을 옥토로!』라는 구호아래 서해안 갯벌을 막는 국토간척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학생시절 민주화운동=정계진출」이라는 약삭빠른 오늘의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고결하고도 순수한가?

4·19는 학생들이 이데올로기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했다. 통일논의가 그것이었다. 『통일을 위해 남북학생이 관문점에서 만나자』 『얼싸안고 아리랑을 부르자』는 식의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이었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 1960년 여름방학때 대학신문에서는 일선을 방문해 현지 르포를 기획하게 됐다.

나는 중부전선을 맡아 경기도 연천지역의 전방부대를 취재하러 갔다. 육군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방문할 부대가 정해진 것이다. 최전방부대에 도착, 대대장의 영접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커다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우리 취재대상은 활달하고 군인다운 중령이었다. 그의 말은 『서울에서 서울대생 대표가



남북통일 등 이념문제를 토론하러 온다. 그러나 당신이 이들을 담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상부에서 우리 학생기자들의 취재의도를 잘못 짚고 앞지른 예측을 했던 것 같다. 지시를 받은 대대장은 그날부터 어려운 숙제를 안은 학생처럼 고민을 거듭하면서 밤을 새워 당시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사상계」를 통독했다고 한다.

학생들과의 토론에 대비한 수험준비였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 해프닝은 4·19직후 학생들의 권위(?)와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준다.

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우리의 眞意를 알게된 대대장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온 듯 좋아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밤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제의해와 우리는 일선에서 痛飲의 하룻밤을 지냈다.

4·19혁명을 이끌었던 학생과 계엄 하에서 민중의 편에 섰던 군인과의 대화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1960년 서울 용두동 사대 캠퍼스 4·19 기념탑 앞에서.



하트랜드 지부

매년 한글학교 돕고 장학사업 활발히 전개

글 : 張明宇(89년 齒大卒·네브라스카주립대 교수)편집인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하트랜드 지부는 지난 1997년 10월 불과 40여 명의 동문으로 발족한 후 5년이 지난 현재에는 Iowa, Kansas, Oklahoma, Nebraska, Missouri 와 Arkansas 등의 6개 주에 걸쳐 3백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 그 규모 면으로도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해왔다.

하트랜드 지부는 구성 지역 특성상 특히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동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대 회장을 역임한 李校洛(59년 醫大卒)동문과 2대 회장 金好元(56년 齒

大卒)동문의 탁월하고 헌신적인 리더십 및 임원, 회원들의 협조로 최단시간에 미주 동창회 중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모범적인 지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제3대 회장인 李相文(61년 商大卒)동문과 金好元이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의 전통도 고수하고 있다.

매년 봄에는 지부 회장의 주관으로 합동 이사회를 통해 한해의 예산과 행사 계획을 심의 확정하며 동문친선 골프대

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2002년에는 Nebraska州 Lincoln市の 李 회장 자택에서 이사회가 열렸으며 정기총회에 대한 계획, 장학생 선정 기준 및 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고, 성대한 만찬 후 골프대회 시상식도 있었다.

하트랜드 지부 발족 후 지난 6년간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이 매년 Kansas City에서 개최돼 왔다. 해가 갈수록 참가 동문이 증가하고, 내용 및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타 주 동문들과의 친목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지 동문들이 민박을 제공하고 있다. 초청 강사의 주제 강연과 더불어 당일 오전에는 동문 및 가족 골프대회를 개최해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동문들간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하트랜드 지부는 지역 한글학교와 상록회 발전에의 지원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정해 돕는 장학사업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2002년에도 정기총회를 통해 3명의 장학금 수혜자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후학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李 회장과 金好元이사장은 2002년 8월 17일 모교 음악대학 순회 연주단을 초청, Kansas City의 미주리대 음악홀에서 3백여 명이 넘는 동문과 그 가족들의 호응 속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한 Kansas City의 Barnes시장이 이날을 「서울대인의 날」로 선포하기도 해 다른 지역 동창회의 많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업으로 나온 수익은 장학 기금으로 유용하게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듯 하트랜드 지부는 현 회장과 이사를 중심으로 여러 임원 및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은 물론 모범적인 실천으로 회원들간 친목과 모교 및 서울대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임은 물론 동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李相文 회장



2002년 정기총회.



토목공학과 동창회

발전기금 모아 모교에 도서비·장학금 지원

글 : 徐立圭(61년 工大卒·우림콘크리트공업(주) 사장)회장



徐立圭 회장

매년 11월 첫째주 일요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 즈음이면, 토목공학과 동문들이 관악산의 멋진 단풍을 배경으로 하는 관악캠퍼스로 가족들과 함께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다. 졸업 30주년이 되는 동기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모교 방문의 날 행사는 졸업 후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동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공대 신공학관에서 4백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했던 모교 방문의 날 행사는 26회 동기회 주관으로 개회식, 동창회 장학금 수여, 해외건설현장견학 보고, 한국수자원공사 高錫九(75년卒)사장의 물(水)과 관련된 특별강연에 이어,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관악캠퍼스 걷기대회와 가족 노래 경연대회의 순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토목공학과 동창회는 동문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매년 1월 신년교례회, 4월 춘계 정기총회, 11월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창회 운영을 위해 회장단 및 임원단의 정례모임과 동창회 소식지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각 행사는 해가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며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돼, 동문과 동문 가족 모두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토목공학과 동창회는 매년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동기회에서 1천만원의 기부금을 동창회에 지원해 동창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3일 모교 행사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6회 동기회에서 50주년을 기념하고, 토목공학과 동창회를 원만하고 훌륭하게 이끌어온 후배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지난 수년간 정성껏 모금한 1천만원을 동창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동창회는 모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억4천여 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해 도서비와 매년 10명의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목공학과로 매년 기자재, 3개 대학(서울대, 동경대, 대만대) 토목공학과 학술교류행사 지원비, 재학생들과 교수들의 환담시간

인 Happy Hour 지원금 등으로 7백만원, 「해외건설현장견학」 프로그램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건설현장견학」은 1999년 여름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 2명을 선발하여 방학동안 동남아 건설현장 견학을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며, 2002년부터는 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견학을 주관하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은 향후 20년 후 자신들이 받은 도움에 상응하는 지원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토목공학과 특유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다녀온 학생은 학부 행사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 경제의 한 부분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동문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각종 시상식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제5회 과학자상을 수상한 金東洙(83년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동문, 제6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및 젊은 공학인상 시상식에서 젊은 공학인상을 수상한 李泰植(78년卒·한양대 교수)동문, 美토목 공학회에서 시상하는 「한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상」을 수상한 李汎求(63년卒·美MWH社 프로젝트 관리자)동문, 제1회 송산상 중 학술상을 받은 吳炳煥(79년 大學院卒·모교 교수)동문 등이 여러 상을 수상했다.



2002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



분당 모교병원 成相哲원장

“차트 없는 디지털병원이 특징”

지난 12월 4일 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모교병원의 준공식이 거행됐다. 이에 成相哲(73년 醫大卒·모교 의대 교수)원장을 만나 이 병원에 관한 궁금증을 들어보았다.

—개원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물은 거의 완공이 돼, 이제 일부 내장공사의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정식 개원은 6월경이지만 이보다 빠른 4월에 진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장비·기기 및 여러 가지 시스템 확립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개를.

『우리 병원은 모교병원의 최초 분원이며 신도시 계획 일환으로 추진된 종합병원으로서 8백20병상 규모의 큰 병원입니다. 성인병, 노인병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센터가 6개가 있고 이를 진료하는 곳이 3백 병상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앞으로 센터 중심병원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특화된 진료 서비스 외에도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분당병원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디지털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돼 있어 종이, 필름, 검사용지, 차트가 없는 「4 less hospital」이라 불립니다. 데이터와 자료가 영상 컴퓨터에 보관돼 필요할 때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개인휴대단말기를 통해 환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시설 못지 않게 환자와 의사간의 유대도 중요할 텐데.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병원은 모(母)병원의 전통과 명예를 계승하고 최고의 의료진과 첨단시설을 갖춘 21세기 초일류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모범적인 병원 문화를 이룩해 환자들이 친절하면서도 신속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은 끊임없이 내부의 학습을 받을 것입니다』

—병원의 운영철학은.

『무엇보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행복한 병원,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병원의 운영방침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동안 개혁과 개선을 통해 모교병원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여러 사립병원과의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21세기 초 일류병원으로 도약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교병원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분당병원의 참신한 운영을 통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성해서 이를 다시 모교병원에 적용시켜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계획이죠』

成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美하버드대 정형외과 연구원, 한국인체기초공학연구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슬관절 학회장, 대한스포츠의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亨>

화제의 동문

모교 약학과 朴萬基교수

“벤처세워 항암제제 「선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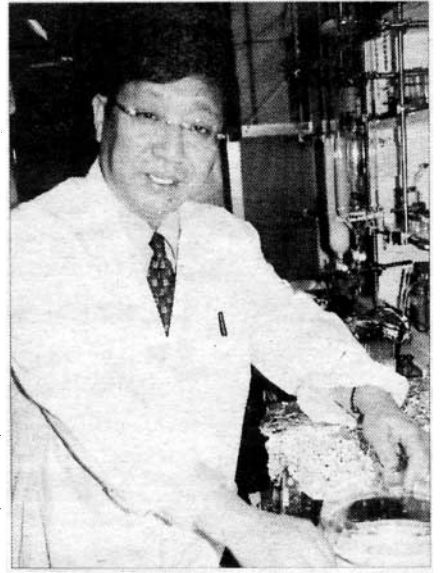
요즘 벤처업계는 그야 말로 한파를 맞고 있다. 투자가 얼어붙은 지는 이미 오래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현실과는 반대로 투자요청이 봇물을 이루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서울대 약대 인삼연구팀이 주축이 된 (주)진생사이언스(사장 金福得)는 인삼 가공식품인 「선삼정」으로 창립 2년만에 눈부신 성장을 했다. 바이오벤처 진생사이언스의 성장을 이끈 사람은 모교 약대 교수로 이 회사 고문을 맡아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는 朴萬基(63년 藥大卒)동문이다.

인삼을 고온·가압하는 방식으로 산삼보다 항암효과가 10배 이상 높은 선삼정을 개발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능성식품인 선삼정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 사멸작용, 암세포 전이방지 작용, 노화방지, 치매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朴동문은 2000년 12월 동료교수이자 제자인 모교 약대 朴政一교수, CJ와 공동으로 진생사이언스를 창립했다. 20~30대 젊은 벤처기업인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60대 벤처CEO가 탄생한 것이다. 당시 자본금은 불과 1억원. 朴동문과 朴政一교수가 각각 4천만원, 연구진으로 참여할 대학생들이 1천만원, CJ가 1천만원을 투자했다. 창립 한 달 전 모교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2001년 1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도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선삼정은 朴政一교수의 박사논문을 중심으로, 1995년 인삼에서 Rk1, Rg3 등 항암효과가 탁월한 성분을 추출해 소량인 이를 극대화시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美과학진흥위원회로부터 「의미 있는 연구」로 선정되고, 英일간지 「가디언」에 소개돼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도 했다.



朴동문은 「인삼종주국에 인삼대표 상품이 없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면서 「아이템이 독창적이고 가능한 외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성공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그는 토목업을 하던 金福得사장을 영입해 자금력을 탄탄히 했고 공동대표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朴政一교수는 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연구에 전념했다. 金사장과 朴동문은 과거에 실패의 인연이 있다. 牛便으로 소염제를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던 金사장은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하다 朴동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3년간 연구를 함께 한 것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성공을 위한 쓰디쓴 자산이었다는데 둘은 공감한다.

학내 벤처기업 성공사례를 선보인 그의 평범한 신념은 벤처신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따끔한 충고가 되기에 충분하다.

『남들과 똑같다면 눈길이라도 끌 수 있나? 뭐가 달라도 달라야 성공할 수 있지』 <鎬>



⑦(주)에스디

혈액 한 방울로 질병 진단하는 키트 개발

세계 70개국·1백여 거래처에 납품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정확한 질병 진단, 이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예방까지 관리하여 병을 낮게 해주는 고마운 곳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소위 유명한 개원병원은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며, 은행처럼 번호표를 끊고 순서를 기다려야 겨우 초진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사전 예약도 의사와 질병 분야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일전에 해야 가능하며, 응급실조차도 때론 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 가족들도 볼 수 있다.

대개 병원을 찾으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특정 검사날짜를 잡고, 검사를 한 후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해야하는지, 처방전을 조제해야할지 다시 상담을 하는 약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자는 검사결과를 기다리면서 혹시 큰 병은 아닌지 괜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병원을 몇 번씩 오고가는 수고를 감수하기도 한다. 의사들과 임상병리학 연구원들 역시 정확한 진단 및 제 날짜에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병원과 의사, 환자 모두에게 이러한 번거로운 시간을 단축하면서 더욱 정확한 질병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혈액 한 방울로 에이즈, 매독,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과 각종 암을 신속, 정확,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면? 그 꿈을 현실화한 화제의 동문 기업이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 (주)에스디(사장 趙榮植·84년 獸醫大卒)가 그 주인공. 이러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공략, 질병진단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에스디(Standard Diagnostics)의 회사명 역시 「세계 표준(Standard Diagnostics)」에서 따왔다.

단백질 칩 및 체외진단용 시약 전문회사로 출발한 에스디(standardia.com)는 1년여의 연구 끝에 골드 콘주게이트(Gold conjugate) 제조기술을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금접합체라고도 불리는 골드 콘주게이트는 항체와 금입자를 결합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식자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초고속 면역진단시약 제조의 핵심물질이다. 그 결과로 개발된 약 50여 종의 진단시약 제조에 필요한 기초원료를 이용해 40여 종의 다양한 질병진단키트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개발제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동시 진단 키트, 말라리아 항원진단 효소면역법 키트를 비롯해 에이즈(AIDS)진단, 매독 진단, 마약남용 진단, C형 간염 진단, B형 간염 진단, 위궤양 원인균 진단키



趙榮植 사장

트, 임신 및 배란 진단키트 등이 있다. 지난 11월엔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한 JICA(일본의 해외무상원조프로그램) 입찰에서 에스디의 에이즈 진단키트가 낙찰됐으며, 인도의 에이즈시약 국제입찰에서도 낙찰이 확정적이라 국제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

또한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로서 개 심장사상충 진단, 파보바이러스 진단, 디스토퍼 진단, 구제역 진단, 생물학적 진단키트인 탄저균 진단키트, 환경호르몬 진단키트인 MEDAKA 진단키트 등을 개발해 진단시약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디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2003년 1월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여러 분야에 진출하는 문어발식 경영보다는 창업 당시부터 체외진단용 시약 한가지만을 연구해온 결과, 중요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입해오던 금접합체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시켜 수입대체효과까지 얻어냈다.

또 먼 미래를 생각해 초기부터 해외마케팅에 집중 투자했다. 국내의 열악한 진단시약시장으로는 세계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 수 없다고 판단, 해외 관련 전시회마다 제품을 소개하며 홍보에 주력했다. 현재 세계 70여 개국, 1백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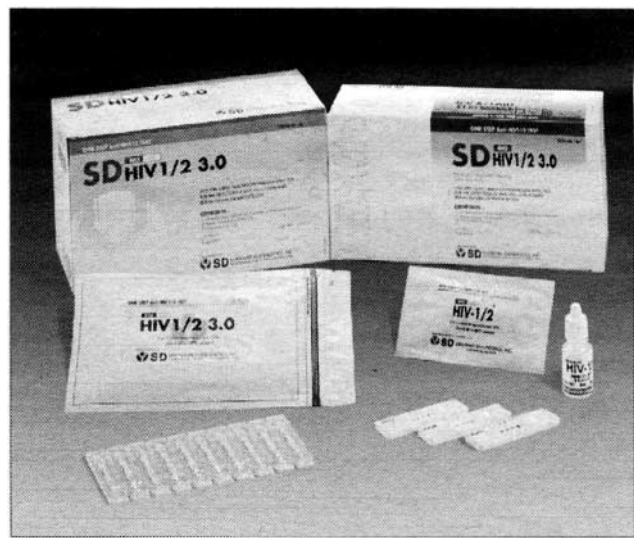
개 거래처에 원료, 완제품, 기술수출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신속진단부문에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WHO 인증, 유럽 CE 마크 인증 등을 받은 에스디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창업 이후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趙사장은 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아낌없이 주고 있다.

현재 상품화되어 판매중인 진단 키트는 「Rapid Test」라고 불리우며 특별한 장비 없이 혈액 한 방울로 10분 이내에 질병의 감염 여부 검사를 완료할 수 있어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4조원. 이는 상용화가 매우 어려운 기술로서, 에스디는 미국과 영국 업체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종류의 진단 원료까지 상품화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趙사장은 「2003년을 사업확장의 시발점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중국과의 합자 회사를 통해 중국으로의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FDA의 등록을 통한 미국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생각」이라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질병진단 분야의 세계표준을 위해 또 하나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表)



에스디의 대표적인 제품인 HIV 질병진단키트.



법률사무소 「清芷」 姜智遠 대표변호사

형제 등 15명, 법조·학계·예술분야서 맹활약

“각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생활 24년간 그 혼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직 하나 없이 「만년」 검사로 명예롭게 퇴직한 姜智遠(72년 文理大卒)동문. 현재 그는 젊은 변호사 몇 명과 함께 서초동에 법률사무소 「清芷」를 개소, 대표변호사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강지원」하면 「청소년 지킴이」가 떠오를 정도로 청소년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하나같이 관여했던 姜동문. 그가 검사로 퇴직한 이유는 청렴하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요, 법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요, 남들보다 튀어보려고 했던 것도 더더욱 아니다. 다만 그가 청소년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는, 다른 데에는 관심이 가질 않아서였다.

姜智遠동문의 어릴 적 꿈은 문필가나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폐부를 찌르는 듯한 신랄한 필치의 신문사 논설위원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고. 하지만 당시 사농공상적 출세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던 터라 법대나 상대를 가라던 부모의 권유에 저항(?)해 모교 정치학과를 택했다. 문리대생으로서 법조계로 입문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대학 2년 때 삼선개헌 반대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무기정학을 받고 경찰에 쫓겨 사찰로 도피, 그때 우연히 시작한 것이 고시공부였다. 72년 제11회 행정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데모를 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졌다. 다시 이를 악물고 이듬해 12회에 도전, 성적이 너무 좋아(?) 멋지게 합격했다. 그후 제18회 사법시험에는 수석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그가 청소년보호위원장 등 청소년 일에 남은 인생을 투신하게 된 것 역시 우연히 이뤄졌다. 초임 검사 시절, 그가 처음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소년사



뒷줄 좌로부터 네 번째 姜昌遠·姜宗遠·姜智遠·金聖朝동문, 첫째줄 좌로부터 두 번째 姜明玉동문, 한명 건너 孫一葉·李孝任·金敬淑동문, 두 명 건너 金英蘭동문.

범과 환경사범이었다. 소년사범 관련 일들은 이후 내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러던 중 89년 처음 도입된 소년범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관찰소장이 되면서 그의 인생행로는 바뀌게 되었다. 97년 초 대 청소년보호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현재 성남 분당 지역에 전인교육특성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운동가 등 80여 명과 함께 「以友 교육공동체」를 결성, 공동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판사로서 묵묵히 길을 걷고 있는 姜동문의 부인 金英蘭(79년 法大卒·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동문과 그녀의 남동생 金紋奭(81년 法大卒·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동문 모두 현재 같은 곳에서 같은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 부인 金英蘭동문의 첫째 언니 金貞蘭(92년 大學院卒·동국대 의대 교수)·朴商潤(71년 文理大卒·울산대 화학과 교수)동문 내외와 둘째 언니 金京蘭(80년 大學

院卒·홍익대 불어불문학과 강사)동문, 여동생 金石蘭(84년 淸大卒·수원대 피아노과 겸임교수)동문 역시 모교를 졸업했다. 金英蘭·金紋奭동문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처가집 동문 모두는 특이하게도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오고 있다. 특히 金石蘭동문은 프랑스 파리에서 8년간 유학을 하고 귀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한국인이 서기 힘든 일본 땅에서 연주회를 가지며 멋진 대미를 장식했다.

姜동문의 형제들도 모교 출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姜智遠동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권유로 법대를 들어가게 된 첫째 형 姜宗遠(60년 法大卒)동문은 주요 대사직을 맡으며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보낸 인물.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능통하고, 개방적이라 국제적 감각이 유별났던 姜宗遠동문은 그의 소신대로 비록 법대를 졸업했지만 외무부에 입사해 부인 孫一葉(61년 文理大卒)동문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녔다. 둘째 형 故 姜基遠(68년 工大卒)동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공대 출신으로서 졸업 후 현대건설에 입사하면서 당시 최연소의 나이로 이사직에 오르는 유능한 인재였다고 한다. 특히 피아노를 잘 치며, 미술, 운동 등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姜基遠동문은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의 부인 金敬淑(68년 淸大卒)동문과는 같은 동기동창인데다 음악으로 맺어진 사이. 대학시절 같은 서클활동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둘다 「음악」에 심취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고. 姜基遠동문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묵묵히 내조를 하던 金敬淑동문은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낙심하지 않고 현재 현대고교 음악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姜智遠동문의 형들과 그와는 달리 남동생 姜昌遠(74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과 교수)동문과 매제 金聖朝(75년 工大卒·중앙대 정보산업대학원장)동문은 21세기 첨단과학 시대 흐름과 함께 하는 생명 및 정보과학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金聖朝동문의 부인 姜明玉(79년 藥大卒)동문 역시 이과계통에서 자신의 전공을 심분 살리며 현재 금강약국 대표약사로 재직중이다.

姜동문 가족이 모이기란 쉽지 않다.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처럼 하나같이 자기 의지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姜智遠동문의 모친 李孝任(33년 京城師範卒)여사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의였다. 여성교육이 불모지와 같았던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초·중·고교를 줄곧 1등으로 졸업했다. 특히 교육자였던 李孝任동문의 부친 역시 여자도 대학을 가야한다고 주장, 딸을 경성사범학교에 진학시켜 당시 유명한 개화파였던 朴泳孝선생 등의 집에서 숙식을 해가며 졸업했다. 4남3녀를 둔 李孝任동문은 이들 모두를 대학까지 보내며, 때론 특정 분야에 진출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들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表)

모교소식

「분당 모교병원」 준공

국내 첫 노인·성인질환 특화병원



분당 모교병원(원장 成相哲)이 지난 12월 4일 金大中대통령 내외와 金成豪보건복지부장관, 모교 朴容暉병원장 등 각계 인사 2백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1996년 3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6년만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준공된 분당병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및 성인질환을 위한 국가중앙 의료

센터이며,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의 노인 및 성인질환 특화병원이다.

분당 成相哲병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모교 朴容暉병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전문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분당병원의 준공은 국내 의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했다.

8백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당 병원은 교수 1백20여 명을 포함해 1천3백여 명의 직원이 하루에 3천여 명의 외래환자 진료를 맡게 되고, 23개 과목을 진료한다.

자율적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분당병원은 노인 및 성인질환에 대한 국가 의료센터 기능, 완벽한 디지털 의료시스템 구축, 질병별 전문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진료 및 응급센터 역할 등을 수행하며 국내 의료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병원 시스템 구축은 분당병원의 최대 장점이다.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전자의무기록장치(EM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CT와 MRI 등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의료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 온라인 처방전달시스템(OCS) 등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기 시험가동과 모의 환자를 통한 진료시스템 점검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개원, 본격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학과를 졸업하고, 美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7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행정대학원 뮌원장은 74년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 내무부·경제연구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83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현재 조세협회장,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금입학관리본부장은 76년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교무부학장을 지냈다.

인문대 李學장은 67년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사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교무처장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자연대 金學장은 67년 문리대

지난 12월 6일 행정대학원장에 吳然天교수가 재선임됐으며, 입학관리본부장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金完鎭교수가 선임됐다.

이어 12월 7일 모교 인문대학 학장에 철학과 李泰秀교수가, 16일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화학부 金夏奭교수가 취임했다.



인문대 李泰秀학장



자연대 金夏奭학장



행대원 吳然天원장



입학관리본부 金完鎭본부장

교직원, 바자회 열어 온정 모아

암투병 前동료·결핵환자에 성금

모교 교직원들은 지난 연말 암투병중인 전직 동료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결핵환자돕기 등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세모를 보냈다.

모교 의대 교수와 간호사, 외부독지가 등 3백50여 명으로 구성된 함춘후원회(회장 宋仁誠)는 지난 12월 6일 병원내 임상 의학연구소에서 불우환자 진료비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 및 「서울 재즈 아카데미」 회원들이 연주하는 음악공연을 열었다. 이날 일일차집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쳐 4천여 만원이 모아졌다.

1992년 결성된 함춘후원회는 매년 봄, 가을에 각각 바자회와 일일차집을 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기금 10억원을 모아 지금까지 저소득층 환자 5백50여 명에게 치료비 6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교직원 10여 명은 지난 12월 10일 난소암으로 자택에서 요양중인 김현숙씨를 찾아 2백50여 명의 정성이 담긴 1천2백여 만원을 전달했다.

교무처를 거쳐 약학대학 학장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

을 받은 김씨는 11월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요양에 들어갔다.

김씨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교직원들은 임시 업무로 어느 때보다 바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이에 교내 인터넷 사이트인 정보광장에는 모금을 하자는 내용과 격려의 글 등이 쇄도했다.

교내 가톨릭 교우회 「대건회」는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탄 소재 결핵환자 수용시설 「시몬의 집」을 방문, 1백20여 명이 모은 20kg 쌀 7포, 옷 3상자, 성금 3백70만원 등을 전달했다.

대건회는 1984년부터 격년으로 결핵환자돕기 일일차집을 여는 등 20여 년 가까이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朴容暉원장 등 모교 병원 임직원

분당병원 건립 공로로 훈장·표창

모교 병원 임직원 24명은 지난 12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실에서 국내 최초 노인전문병원인 「분당 모교병원」 건립 공로로 朴容暉원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훈장 및 장관표창을 받았다.

차원장과 더불어 분당 成相哲병원장이 황조근정훈장, 鄭利成행정처장이 국민훈장 동백장,

朴榮培 前분당병원 건립추진본부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吳秉熙 前기획조정실장과 분당병원 개원준비단 尹浩鍵사무국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 盧宰圭 前분당병원 건립추진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 분당병원 개원준비단 金哲鎬진료기획처장 등 17명이 각각 장관표창을 받았다.

시력 상실 환자 모임 「RP협회」

인공망막 연구진에 기금 전달

한국RP협회(회장 南惠云·89년 法大卒)는 지난 12월 14일 모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방문해 안과 鄭欽과장이 이끄는 인공망막 연구진에게 연구기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협회원들은 임상의학연구소 李鎭學소장과 鄭欽과장, 소아안과 劉英碩교수, 徐鍾模안과 전문의의 안내로 인공망막 연구진의 연구내용과 시설을 견학했으며, 향후 긴밀한 상호 협조관

계 유지를 약속했다.

한국RP협회는 망막색소상피 변성이라는 질환(국내 10만~2백50만명 추산)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2001년 3월 발족했다.



수리과학부 故 閔虎基 명예교수

유가족이 발전기금 3억원 기탁

모교는 지난 11월 28일 5월 별세한 자연대 수리과학부 故 閔虎基 명예교수의 유가족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閔교수가 생전에 늘 자신의 재산을 모교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1억원은 평소 탁구를 즐겨했던 閔교수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아마추어 탁구대회를 창설하는데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유가족의 뜻이라고 전했고, 이자수의 중 절반은 수리과학부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閔교수의 전공인 응용수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학자를 초청, 강의록을 발간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평소 임버릇처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말해온 閔교수는 교수생활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재산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보다는 탁구 동아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

며 남다른 사제의 정을 쌓았다.

종교학과 鄭鎭弘교수

문화관에서 고별강연



국내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인문대 종교학과 鄭鎭弘교수(사진)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12월 10일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고별강연을 가졌다. 鄭교수는 『종교에 의문을 던지면 안된다는 종교계의 종교학 비판에 대해 학생들은 침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鄭교수는 1960년 모교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 20세기 대표적 종교사가인 엘리아데의 종교문화연구를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며 종교학자로서 명성을 쌓아나갔고 1982년 모교에 부임했다. 그동안 덕성여대·명지대 교수, 한국종교학연구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鎬)



사라진 「3T교수」와 화초 기르는 교수

李善子(65년 看護大卒)모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나는 하루의 일과 중 하나로 화초에 물을 준다. 학교 연구실에 선인장 몇 그루와 아프리카 바이올렛 몇 포기 그리고 동양란과 양란 화분 몇 개가 전부다. 살림집 아파트의 베란다에도 같은 수준의 화분을 놓고 화초를 기른다고 매일 물을 주고 있다. 내가 키우는 이들 화초들은 이삼십 년 전부터 내가 돌보아온 것들이다.

바이올렛은 학생이 선물로 갖고 온 것을 이십 년쯤 키우는 것이고, 선인장은 원장 부속실에서 분양 받아 키우게 됐고, 양란과 동양란 몇 본도 축하화분으로 들어 온 것들로 그 중에는 버려지는 것을 주워온 것도 하나 있다.

지금까지 화초를 키우면서 동양란이나 양란의 경우는 정성을 들였어도 살리지 못한 것도 많다. 그러나 선인장은 물만 제대로 주면 잘 자라서 싱싱하고 바이올렛은 꽃을 계속 피우게 할 수 있게끔 됐다.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 속의 연구실에 화분 몇 개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들은 얼마나 오래 가꾸는가? 그리고 화초를 가꾸며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

창 밖의 하늘은 흰 눈을 머금은 듯 젓빛으로 뿌옇다. 학기말 성적처리와 연말 정산 서류 재축을 받아 우선 처리하고 커피 한잔을 타 마시면서 내가 키우는 화초를 쳐다보며 단상에 젖는다.

이십 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수들 중에는 3T교수가 많다고 사회적인 힐난을 받던 때가 있었다. 3T교수란, 아침에 출근하면 차(Tea)를 마시고, 오후엔 정구(Tennis)를 치고, 저녁에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Television)을 시청하면서 연구업적이 적은 교수를 지칭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도 교수의 연구업적은 학생과 사회의 관심사였고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연구업적을 양적으로 비교해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하면서 비판하지는 않았다. 3T교수 지칭 이후부터 정구 치는 교수모습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초에 물주는 교수에게는 별다른 시선이 주어지지 않아 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화초에 물을 주며 옛날 어렸을 적 두메산골에서 자라면서 보고 좋아했던 들판의 꽃들을 회상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되뇌어 볼 수 있는가

보다.

우리 나라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바이올렛은 꽃은 작으나 진보라색으로 생명력은 더욱 강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논두렁에서 수줍은 듯이 숨어서 피어 있던 할미꽃이 내게는 예쁜 꽃으로 보여서 꺾어 가지고 다니던 기억이 새롭다.

할미꽃의 전설을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에는 전설 속의 할머니가 그저 불쌍하기만 했다.

왜 할머니가 막내딸을 찾아가다가 고갯마루에서 지쳐 쓰러졌는지? 그리고 고부랑 할미꽃으로 다시 되살아났는지?에 대한 뜻을 몰랐다. 이제 전설 속의 할머니 처지를 십분 이해하는 나이가 됐다. 내가 할미꽃을 논두렁에서 못 본지가 십년은 더 된 듯싶다.

그러나 내 주위에서 할미꽃의 전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사정이 비슷한 할머니들은 많이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할머니들이 늘어 날 전망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화초에 물을 주면서 보살핌의 철학을 터득해가고 있다고 하



면 우스갯소리라고 일축 당하지는 않을까? 그 옛날에도 불쌍한 할머니들이 있어서 할미꽃의 전설이 구전돼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아직까지도 불쌍한 할머니들은 계속 늘어만 가는가? 남녀차별 때문에 남자형제보다 못 배웠고, 결혼 후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느라 일생을 보냈는데, 이제 나이 들으니 자식들은 같이 살기 싫어하네! 사고무친 할머니도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만 가네.

여자의 일생은 소설처럼 기구한 경우가 이다지도 많다는 것인가? 이렇게 읊조리는 내 녀두리가 우스갯소리가 되면 좋겠다.

잘 자라준 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鄭仁植(78년 工大卒)정인갤러리 대표·교육 및 문화활동가

난 오늘도 딸아이가 쓰던 방에 놓인 물건들을 쳐다보며 객지에 가서 홀로서기에 여념이 없는 자랑스런 이름 지혜를 불러본다.

공부하느라 제대로 얼굴조차 못 보던 아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난지도 3년째 접어든다. 어쩌다 잠깐 짬을 내어 집에 온다는 연락이 오면 그 순간부터 나와 아내는 설레는 마음에 어쩔 줄 몰라한다.

특히 아내는 공부에 찌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이려 이 시장 저 시장을 헤집고 다닌다. 그것도 꼭 재래시장만을... 게다가 그날부터 아내의 잠자리 옆 벽에 붙어있는 딸아이 사진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수난을 당한다. 만져보고 사진 속의 아이와 얘기하고 그러기를 잠이 들 때까지 반복하니 말이다.

하긴 어느 부모나 첫딸이 어릴 땐 사랑스럽고 자라면 대견스러울 것이다. 나도 대망의 80년에 결혼, 이듬해 우량아로 태어난 딸아이와 함께 한 지난 20여 년 세월이 너무나 생생하게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다.

내 아기 이쁘다고 둘러메고 자랑하느라 안 가본 곳이 없건만, 세월이 흘러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 내가 봐도 잘 생긴 아이는 아니었는데 조금은 뽀뽀스런 행동을 했구나 싶어 그동안 주변석구들의 인내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어찌하다보니 나 역시 나이 탓인지 몰라도 딸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녀두리를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다. 제대로 내 딸 지혜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지혜야! 너를 낳아 자랑하고 싶어 시도 때도 없이 허리춤에 끼고서는 정신 없이 쏘다녔는데 벌써 20여 년 세월이 흘러 이 아빠의 당당한 경쟁자로 성장했으니 엄마와 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란다. 구닥다리 아빠 탓에 쉬운 길을 그냥 두고 먼길을 둘러 오느라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나... 그나마 남들처럼 너에게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각박한 서울 생활이 또 다른 시련일 게다.

그래도 너의 왕눈이 엄마는 3백65일을 너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너와 함께 한 20년 세월을 글로 제대로 정리하는 못하고 있지만 너의 엄마 가슴속에는 비디오로 촬영되어 그

어느 영상물보다도 더 훌륭한 작품으로 남아있단다.

어쨌든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식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고 준비하기 위해 1분도 헛되이 생활하지 않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보고 싶구나. 다들 지난 세월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다고 하지만, 아빠라는 한 인간의 너무나 주관적인 여건 속에서 함께 잘 호흡해준 지혜가 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 딸 정지혜야! 이제는 법적으로도 성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고 웬만한 어려움도 겪으면서 현재까지 왔으니 정말 N세대의 장점을 취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직·간접 경험과 자료들을 입력해 21세기를 꾸려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정진, 또 정진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마저도 아둔한 50세 아빠의 구시대적 희망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긴 하지만, 너무나 잘하고 있는 너에게 유·무형으로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너의 엄마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난 너의 역할을 굳건히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야.



아빠도 반성하고 또 반성해가면서도 이 땅의 씩씩한 인간 정지혜를 위해 인생 선배로서 때에 따라서는 보좌관으로서 평생 함께 해 주마.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러고도 여력이 생긴다면 너를 남자아이처럼 키운 이 아빠의 심정도 가끔 한번씩은 해아려 주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지혜를 다시 한 번 불러보면서 우리 딸 파이팅!! 해 바라기 파이팅!!

(이 글은 鄭仁植동문이 딸 정지혜(모교 약대 약학과 3학년 재학중)양에게 보낸 편지로서, 부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공모에서 최우수작에 선정된 작품임)

SNUA OPINION LEADER

서강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李相禹(61년 法大卒·본회 부회장)교수가 지난해 12월 9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교수직을 마감하는 고별강의를 했다. 2월 한림대총장으로 정식 부임하는 李교수는 지난 30여년간 자유·질서·평화라는 3개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이론 연구와 후학지도를 해왔다. 이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열린 고별강연의 내용을 요약했다.

체험에서 다져진 문제의식

대체로 自我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이 한 학자의 문제의식을 결정한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제 시대와 소련군 점령 시대, 북한 공산체제가 들어설 때의 혼란기 그리고 6·25, 4·19, 5·16 등을 겪으면서 나는 전체주의 전제정치의 무서움을 강하게 느꼈고 그 반동으로 모든 사람이 남의 恣意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질서와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현장에서 보면서 평화질서를 생각하게 됐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나는 막연했던 관심들을 구체적 연구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자유·질서·평화라는 3가지 개념이 그 뒤 30년간의 나의 교수생활을 관통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미국 유학시절의 은사인 Rummel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과 logical positivism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됐다.

나는 30년간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자유주의 평화질서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

조직의 부속품 되선 안돼

사람이 있고 나서 사회나 조직이 있다. 사람은 자기 완성적 존재로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돼야 한다. 조직의 부속품이 돼서는 안된다. 타인의 恣意로부터

자유와 안정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자유주의의 환상이나

전체주의의

유혹에 빠져

의 해방을 자유라 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다.

사람이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인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조건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자유를 극대화하다 보면 삶의 조건 마련

이 어렵고 삶의 조건을 강조하다보면 자유에 대한 社會的 제약이 커져 자유의 본질을 파괴한다.

자유영역을 칭하는 「私」와 사회제약을 뜻하는 「公」과의 조화가 그래서 영원한 학문적 과제로 남는다.

자유는 인간 본성의

당위적 존재 양식이고

질서는 자유 보장장치,

평화는 자유의 지도이념

사람은 모두 자유를 최고가치로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유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주어진 규범 속에서 안정을 회구하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인간성의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의 환상이나 전체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자유는 본질을 다치지 않고 자유인의 품위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모책을 찾는 일이 결국 사회과학의 최대과제가 된다.

社會는 질서이다. 지배이념, 규범과 조직 그리고 규범이 지켜지도록 만드는 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위적 질서가 사회질서다.

질서란 사물의 時空 속에서의 규칙적 배열을 의미하는데 그 규칙에는 하늘의 뜻이라 할 자연법칙과 사람이 정하는 규범이 있다. 이 규칙만 알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기대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서를 안정된 기대구조라 부른다.

문제는 그 질서를 어떤 원칙에 따라 만들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동양전통사상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질서에 사회질서를 맞추어 나가려 애썼다. 天人合一의 접근이 그것이다. 즉 자연질서를 사회질서의 모델로 삼으려 했었다.

자연질서의 핵심은 共存과 調和다. 존재간의 상호존중과 共存이 자연의 모습이다.

삶의 존재로서의 격은 모두 같다(平)는 생각을 전제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포용(和)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질서다. 사회질서에서도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사회구성원리의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平和 개념이다.

자유는 인간본성의 당위적 존재양식이고 질서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보장장치이고 평화는 질서가 자유 보장 장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지도이념이다.

정치의 文明史的 이해

인간의 자연지배능력이 바뀌면 삶의

양식이 변하고 이에 따라 추구가치가 바뀐다. 질서의 창출·유지·관리·개선의 체계적 행위를 정치라 한다면 정치도 시대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栗谷선생이 말하는 法因時制 時變則法不同이란 이를 이르는 말이다. 빈곤시대에는 먹고사는데 역점을 둔 富國強兵 체제가 그리고 自足시대에는 민주체제가 옳은 체제였다.

앞으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21세기적 풍요사회가 오게 되면 어떤 체제가 합당할까? 사회 분업이 심화되면 「보편인」은 없어지고 모두 기능별 전문인이 될 텐데 사회관리의 안목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주권행사도 질서를 바로 유지할 수 있을까?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는 新遊牧시대에 국가 단위의 정치체제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을까? 현존 민주정치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해진다고 본다.

「선비민주주의」가 대두

새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간존엄을 보장하는 평화질서를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될까? 이미 20세기적 환경에서 자유주의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자유주의의 기본 thesis를 고수하려는 주장을 libertarianism이라 한다면 인간 존엄보장을 위한 공동체적 개입을 강조하는 사상이 communitarianism이 되는 데 이 두 이념간의 투쟁은 지난 1백년

결국 교육을 통해

강한 사람을 선하게,

선한 사람을 강하게

해야 평화질서가 형성

지성인간의 핵심 논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를 내세운 나치즘, 파시즘, 볼셰비즘에 대항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전쟁도 치렀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따라 자유주의자들 간에도 많은 自家 수정 논의가 있어왔다. Rawls의 distributive justice론, Ackerman의 dual-track law-making 등이 그런 노력의 일단이다. 최근에는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체제에 知的 통제를 강조하는 intellectual democracy가 논의되고 있다.

조정지적 지식인 집단으로서의 「선비」가 체제운영자의 기본이념 이타를 견제하는 개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선비민주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볼 과제라 생각한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서구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화질서를 「사회계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양정치사



李相禹

- 1961년 모교 법대 졸업
- 1971년 美하와이대 대학원 박사학위
- 1971~1973년 하와이대학원 부설 국가차원연구소 부소장
- 1976~2002년 서강대 정치학 교수
- 1984~1995년 서강대 동아연구소장·공공정책대학원장·사회과학대학장
- 현재 한림대 총장·계간지 「신아세아」 편집장

상에서는 인간간의 「주어진 관계」를 존중하는 正名論에서 평화질서를 찾고 있다.

아마도 21세기적 시대상황에서는 正名論에서 출발하는 관계 중심 질서와 知的 통제를 가미한 민주질서가 평화질서의 원리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서관리의 지적통제가 필요해

사람은 삶을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동등이나 질서 관리에 있어서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秩序 관리는 역시 전문지식인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대중에 영합하는 衆愚정치가 득세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질서관리의 知的 통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개인과 집단, 인간과 자연간의 和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질서학이 앞으로의 사회과학의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질서를 연구하는 학자의 자세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바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다. 「불이 빛의 모체가 되듯 사랑은 平和의 모체가 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는 善한 자가 강할 때, 그리고 강한 자가 善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결국 교육을 통해 강한 사람을 선하게, 선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평화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弘益人間의 바른 뜻을 가진 지성인을 길러내고 범세계적인 지성인의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세계평화질서는 자리잡을 것이다.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의 남은 여생의 연구과제로 삼으려 한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온정이 느껴지는 엘리트로 거듭나야

申增秀(연세대 의대 교수) : 尹美容(69년 音大卒·국립국악원장)동문 동서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서울대 동문들은 이심전심으로 동문인 李會昌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경기도, 서울대 법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제1당대표를 역임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최고의 엘리트인 그는 나 역시 우리의 리더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같은 사람이 돼 이 나라를 이끌어주길 기대했다. 상대 후보는 상고 출신에 변호사 경력은 있으나 李會昌후보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로 엘리트를 선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서울대는 수많은 장관과 행정각료,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서울대 동문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다. 국무총리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분이 하는 자리인가보다 할 정도이

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대통령이 되는데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에겐 그다지 기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李會昌후보는 자신이 서울대를 졸업한 엘리트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자신도 서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리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라는 것이 미국 국민에게 자부심

을 갖게 하고 신뢰도에 크게 기여한다. 무슨 차이일까?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하는 의원에는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표식을 해 사람들에게 자신은 서울대 출신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연애를 하는데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따고 시작한다. 학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서 왜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별 장점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나라의 엘리트들에게 갖는 일반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엘리트는 전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손익에는 계산이 빠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심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나라 엘리트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식인들도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성과 감성의 대결이었

다. 사람들은 엘리트의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기타를 치는 서민의 친근감을 선택했다.

나는 서민적인 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사람들은 서민적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조금 물려서기는 했으나 유세 중 서울대를 없애겠다고 했기에 서울대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유념할 것은 대통령 후보의 그런 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李會昌후보가 이 말에 별 반박을 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그 훌륭한 대학을 왜 없애냐고 역성 들어줄 사람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는 글이다. 괴롭겠지만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누구나 자신의 처지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을 잘 이해해야 한다.

서울대 출신이 이만큼 사회에 자리 잡은 것은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반박하기 보다는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듣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 때,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물 30호) 덕입니다.

절 입구인 일주문에서 소나무 우거진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거목이지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됐다는 이 나무에 대해선 얽힌 사연도 많습니다.

태생부터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625~702년)가 던져 놓은 지팡이가 자란 것이라고 하고,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면서 심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마의태자 쪽을 기준 삼아 1천1백살 정도 됐다는 게 통설이지요. 오래 살아온 만큼 신비하고 기이한 일화도 많습니다.

정미사변 때 왜군이 쳐들어와 절을 불태웠을 때도 타지 않았고, 고종황제가

든 느낌이라곤 없었습니다.

이 나무의 절반 나이밖에 안 되는(그래도 6백살이긴 하지만) 절 앞마당「주목」이 살가죽만 남은 노인 같은 형색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은행나무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더러 부러진 가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낡고 오래 돼서 죽음의 빛이 스민 것들이 주는, 여위고 앙상하고 물기 없이 축 처진 느낌이 전혀 없이 당당하고 활기차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풍상 속에 자신을 지켜온 나무답게 뭐라고 간단히 형용할 수 없는 단단함과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은행나무는 세상이 온통 공룡들로 가득 찼던 백악기 이전의 나무로 같

의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이가 주는 크고 작은 제약에 스스로 기가 죽는 것이지요. 전 같으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많은 일들을 타의에 의해 혹은 스스로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의욕이나 열심, 부지런함도 당연히 줄어들기 십상이지요.

살아있는 존재의 특성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고통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결국 나이 들어 욕망을 줄이는 건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편일 테지요.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삶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 아니 식물까지도 생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있으면 평균수명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사람의 경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5년은 젊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게다가 동기가 확실하고 강렬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취도는 물론 성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동기는 꿈과 광기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하고요.

나이 들면 자꾸 막막해집니다. 막막함은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라는데 말입니다. 정리한다는 구실로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용문사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을 다 떨어진 나뭇 상태로도 변함 없이 우람한 모습으로 서있을 은행나무를 보면서 세월과 더불어 자꾸 초라해지는 자신을 추스르고, 새해엔 미처 못한 일들을 보다 열심히 마무리하자고 다짐해 보면 「인생의 쓴맛」 때문에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느 새 한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경우엔 『올해엔』 하던 일 중 한가지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새해를 기약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 듯합니다.

이런 참에 『아직 인생의 「쓴 맛」밖에 못 본 과객』이라는 자기 소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조직의 쓴맛을 수없이 절감한 만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문득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놀라웠던 기억이 살아난 것이지요.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년)에 대경대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진덕여왕 3년(649년)에 원효대사가 세웠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전자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문사가 유명한 건 무엇보다 절 건물 바로 아래 우뚝 솟은 은행나무(천연기념

승하하셨을 때는 큰 가지가 꼭 부러졌고, 일제 때 나무를 자르려던 순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8·15광복과 6·25, 4·19와 5·16 등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미리 알고 울었다고도 하구요.

어쨌거나 문화재청에서 최근 전국의 老巨樹(늙고 오래된 나무) 1백40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키는 67m, 지면에서의 줄기 둘레는 15.2m로 여전히 국내 식물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때 60m이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7m나 더 자란 셈이지요.

1천 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잘 생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열다섯 가마나 되는 은행을 딸 수 있다고도 하구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이지 나이

은 시대 생물 중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수식물입니다. 은행나무에서 혈액순환 촉진제가 개발된 것도 이토록 강한 생명력을 유지시킨 비결을 연구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다시 한해를 보내는 즈음 받은, 「용문사 은행나무」를 떠올린 것은 새해엔 나이나 처지에 아랑곳없이 곳곳한 그 나무를 조금이나마 닦을 수 있었으면 싶어서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 자리에서 온유하되 강건한 모습으로 묵묵히 제 몫을 잘 감당했으면, 그럼으로써 나 이 틈에서 비롯되는 괜한 주눅이나 눈치 보기, 기웃거리기, 지레 포기하기...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 의연한 자세를 지닐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개인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용 문 사 은행 나무 의 힘

삼양정수공업 張學淳회장

본회에 특지장학금 2억 출연

지난 12월 24일 삼양정수공업 張學淳(50년工大卒)회장(사진)이 본회에 장학기금으로 2억원(4구좌)을 출연했다.

본회는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張學淳특지장학회」를 설립하고, 張회장이 특별히 지정한 모교 대학원생 2명에게 張회장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張회장은 「모교에서 상하수도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지



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향후 여건이 허락하면 추가로 장학금을 출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산지부

새 회장에 李梓旭동문 뽑아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進)는 지난 12월 12일 마산 로얄호텔 무궁화홀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엘리트가 부정되는 시대에서 우리 동문들이 슬기롭게 금지와 품위를 지키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창회 임원 및 집행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權永煥고문은 격려사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이제껏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2002년 결산 및 심의 안전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李梓旭(65년工大卒·주)노키아TMC 대표이사)동문(사진)을 선임했다.

신입 李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동창회의 많은 발전을 이끌어오신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현재 좋은 여건 속에 있지는 않지만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 심의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제22대 회장에 朴容晟(65년주·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朴회장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더 젊어지는, 젊은 후배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싱가폴무역 裴柱元(59년주)대표의 송시 낭독 후, 뽀빠이 이상통씨의 진행으로 2부 여흥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신임 朴회장은 동양맥주 사장·부회장, 대한유도협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상업은행 이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두산중공업 회장, 한국유통정보센터 이사장 등을 겸직하고 있다.

수의과대학

특지장학금 제도 신설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率)는 지난 12월 23일 독산동 소재 로얄부페에서 회장단 송년회 및 장학재단 이사회를 가졌다.

동창회 활성화 방안 및 2003년 사업계획으로 흠뻑데이 겸 정기총회 행사를 더욱 알차게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제2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賞」 대상자 추천을 공지하기로 했다.

또 낮은 비율로 계속 줄어드는 동창회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회비뿐만 아니라 평생회비를 도입,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회의를 통해 신입 총무에 모교 趙明行(85년주)교수, 부총무에 모교 劉漢相(82년주)교수를 선임했으며, 다음 모임에 각 기별로 임원을 추가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가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2003년부터 특지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과대학

합춘회관서 「합춘의학상」 시상



좌로부터 姜信浩명예회장, 金建彦·崔英子동문, 李희장·李上道동문, 李鍾郁학장, 朴容眩병원장.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27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 3층 회의실에서 姜信浩명예회장, 申相珍대한의사협회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및 제6회 합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李회장은 「여러분의 사랑과 결실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합춘회관이 선후배의 화합의 장이 되고 모교 사랑이 이곳의 지성과 어우러져 이 나라 의학교육을 지원하는 산실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의약분업의 울골은 정착과 의료시장 개방 등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동문 모두가 인간애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초심을 유지하여 의료계의 중심에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鍾郁학장은 모교 현황보고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6백여 명의 교수들의 노력으로 2001년 SCI에 등재된 논문 수가 6백61편에 이르렀다」며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4개의 전공과목을 신설하고, 학부 및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모교가 21세기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朴容眩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을 상대로 다양한 교육을 펼쳤으며, 앞으로 열악했던 소아병동을 신설하고, 응급실 규모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월 4일 준공식

을 가진 분당 모교병원에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합춘의학상 경과보고에 이어 이날 시상식에서 연구업적 부문에 울산의대 金建彦(65년주)교수, 연구계획 부문에 울산의대 李相道(82년주)교수 그리고 해외 부문에 美에일대의 崔英子(66년주)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金建彦교수는 「뇌혈류 결핍환자에서 혈류개통 수술 후 뇌대사기능호전의 양성자 자기공명분광을 이용한 연구」와 「동맥경화의 초기 세포변화에 관한 실험동물에서의 전자현미경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서 내경동맥내막절제술이 뇌 대사물질의 변화 또는 호전을 가져오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또 李相道교수는 만성폐쇄성 질환 환자의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기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崔英子교수는 「한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분자 역학적 고찰」에서 Westernized Lifestyle(생활양식 변동)과 유방암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특히 金建彦동문은 이날 합춘회관 건립에 보태달라며 5백만 원의 기금을 李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상자들의 케이크커팅식이 거행됐으며, 참석자들은 2층에 마련된 연회실에서 만찬을 즐겼다.

상과대학

신임 회장에 朴容晟동문 추대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12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모교 재학생에게 등록금 50만원만을 지급하던 것을 전액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며, 2002년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후배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특지장학회를 마련해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다」며 「이밖에 연2회 소식지 형태로 발행되던 「향상의 탐」 회보를 연4회 잡지형식으로 간행하는 등 동창회의 모토인 「모여서 뭉치자, 뭉치자, 빛내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후임 회장으로 젊고 유능한 후배가 나와서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것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임 朴容晟(左)동문과 악수하는 高회장.

다.

이어 同會와 총동창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張禮準명예회장 및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에 감사장을 증정했으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성공적으로 합병시킨 金正泰(70년주)국민은행장을 대신해 국민은행 李哲柱(65년주)상임감사위원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의 격려사와 2002년 결산 및 2003년

마로니에회

제7회 부부동반 송년모임 가져

문리대 64학번 동기회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단국대 교수)가 지난 12월 22일 하얏트호텔 트립룸에서 부부동반으로 58명이 모인 가운데 일곱 번째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면서 여흥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동보항공 李麟載

대표가 캐나다행 항공권 2매를 경품으로 출원했으며, 한국은행 金炳日금융통화위원이 올해 신년교례회를 주최하겠다고 제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대 權武穗교수, 국제조명 權武一사장, 이화여대 具沃列교수, 영남대 金基台교수, 국민창업투자 金東珽

사장,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金永文학장, 부산 신항만(주) 金泰典전무, 盧正치과의사, 중앙일보 卞相根논설위원, 辛鉉雄前문화관광부 차관, 전주MBC 柳熙根사장, 계원조형예대 李起盛교수, 모교 李東烈교수, 李相賢前국회의원, 李宇鎔前보림증권 부사장, 성균관대 인문대학 李漢龍학장, 동국대 任敦姬교수, 林雲峰세무사, 鄭鎭一前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외대 인문대학 崔甲洵학장, 농협중앙회 許瑄상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表)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 창립

초대 회장에 金彦鎬동문 선출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는 지난 12월 21일 한국언론재단 매화홀에서 劉日演(75년卒)전임 회장,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郭贊浩사무국장, 리빙TV 鄭昌基방송단장, 서강대 金學洙교수, 명지대 安瑛燮교수, 홍익대 李民熙교수, 국민대 李昌炫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같은 모교 출신 언론계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신문대학원 신문학과에서 대학원 신문학과 그리고 언론정보학과로 분리되면서 단합된 동창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에 선배들이 다져놓은 전통을 이어가고, 후배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동창회와 통합하여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南善顯총무는 경과보고를 통해 『76년 신문대학원이라는 간판이 내려진 후 대학원 신문학과, 언론정보학과, 학부 순서로 발전해왔으며, 이로 인해 동문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젊은 후배들의 참여가 없어 기금 확충,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타 대학과는 달리 모교 신문학과는 학부가 아닌 대학원에 먼저 전공이 신설됐기 때문에 대학원동창회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대 회장에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金彦鎬(78년卒)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趙容直 前신문대학원동창회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金회장은 취임사에서 『26년간 출판사업에만 투신해온 제가 회장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우리 나라의 미디어 흐름에 발맞추고 방송·출판이 서로 잘 맞물려 발전하는데 일조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모교 관계자 및 동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피력했다.

에 한국적인 맛을 도입해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들과의 차별화에 성공, 일류 패스트푸드 업체로 성장시킨 (주)롯데리아 李哲雨(70년卒)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경영대 우수 강의상」 수상자로 모교 재학생들이 지난 학기 직접 작성한 강의평가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힌 尹錫喆(63년 文理大卒)교수를 선정, 상패와 함께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개설한 홈페이지(www.snumba.com)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고, 시상식 후에는 모교 경영대 愼侑根(64년 商大卒)교수가 「경영자 리더십에 대한 재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범대학

「자랑스런 동문」 선정

사범대학동창회(회장 辛東一)는 지난 12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동문 1백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송년회를 가졌다.

전문MC 金沈珠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辛회장 및 모교 曹昌燮학장이 인사말을, 鄭元植 前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축사를 했으며, 2002년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우리모두복지재단 金俊文(52년卒)회장, 모교 權潤芳(63년卒)교수, 청소년인성지도교육원 朴成淳(64년卒)원장, 잠실고 金朝寧(65년卒)교장, 세종대 李容秀(81년卒)교수 등을 선정, 꽃다발을 증정했다.

특히 31대 회장을 역임한 李璫教 전임 회장 및 姜信鎬 전임 상임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하는 순서를 가졌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승부예능보유자인 모교 李愛殊(69년卒)교수의 지도로 체육교육과 무용과 학생들이 「진도 북춤」을 선보였다.

모교 李應百명예교수의 건배제외에 이어 참석자들은 화기에 애한 만찬을 즐기며,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협찬한 캘린더, 다이어리, 책자 등을 받았다.

체육교육과

金昌圭회장 추대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李康法)는 지난 12월 9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昌圭(62년卒·국민대교수)동문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朴賢泰(71년卒·계원중학교 교감)·南相男(76년卒·한양대교수)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金회장은 그동안 동창

식품공학과

새 회장에 池根億동문 선임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洪德杓)는 지난 12월 6일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모교 金載勗(50년卒)명예교수 및 全在根(62년卒)교수의 축사와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다 얼마 전 귀국, 이날 모임에 처음 참석한 吳南煥(72년卒)동문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모교 李炯周(84년卒)교수가 지난 한해동안의 학과 활동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 기업을 홍보하는 시간을 통해 박정웅(91년卒)동문이 기획이사로 재

직중인 Bio&21을, 아이비즈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인 신주현(91년卒)동문이 회사를 소개했다.

2부 친목 단합의 시간에 앞서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모교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池根億(79년卒)교수를 추대했다.

선후배 대화의 장과 경품 추첨이 끝난 후 모교 재학생 이민규·현진호 군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2003년 사업계획으로 장학사업을 위한 학과 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하고, 동문들에게 평생희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약대36회

모교·동창회 발전기금 전달



약대36동기회(회장 朴璫浩)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모교 金洛斗·金炳珏·李民和명예교수, 金相基·金元默교수, 徐大錫·崔鍾秀·崔東幸·元容漢·曹仁鎬·張文任부회

장 및 일본에서 근무하며 해외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金大中부회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졸업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차회장은 千文宇학장과 李禮植약대동창회장에 각각 모교발전기금 1천만원, 동창회발전기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차회장을 유임했다.

한편 회칙 개정을 통해 제3장 6조 임원 임기 및 선출에서 임원은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제4장 8조 모임에서 정기총회를 매년 1회, 11월에 개최하고, 제5장 9조 회비에서 연회비를 5만원으로 한다는 안을 추가했다. 또 행사 준비를 위해 모금된 기금 가운데 남은 1천5백만원을 회원 친목, 모교 장학금 지급, 동문 경조사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表>

경영대학원

경영인 대상 및 강의상 수여



좌로부터 趙東成학장, 李哲雨·尹錫喆·朴聖東동문, 金회장.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12월 23일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대영테크시스템 孔大植사장, 禹德禎 前쌍용그룹 부회장, 금북주 金泓殖회장 등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제3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국가와 사

회,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서울대 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최첨단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통해 노동집약적 봉제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시켜, 국내 의류산업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은 (주)파크랜드 朴聖東(70년卒)사와 서양 음식인 햄버거

동 정

수 상

▲洪允淑(46년 京城師範入·예술원 회원)=지난 12월 9일 춘강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춘강상(예술부문) 수상자에 선정됨.

▲陸東蒼(50년 師大入·서전 회장)=지난 12월 10일 조선훈에서 열린 서울사대부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런 부고인상」을 수상함.

▲趙東華(54년 藥大卒·월간 출판인)=지난 12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인의 친목회인

虛行抄모임이 수여하는 제3회 허행초상을 수상함.

▲劉東洙(56년 齒大卒·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오는 1월 20일 서울고충동창회 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을 수상한다.

▲宋壽男(58년 師大卒·단국대 교수)=지난 12월 7일 동송동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수여하는 2002 올해의 최우수 예술인상(무용부문)을 수상함.

▲鄭璟喜(59년 文理大卒·前한국일보 논설위원)=지난 12월

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송건호 전집 출판기념회에서 제1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함.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대산문학상(평론부문)을 수상함.

▲趙長熙(60년 工大卒·美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지난 12월 10일 조선훈에서 열린 서울사대부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런 부고인상」을 수상함.

▲尹炳權(61년 工大卒·영풍산업 사장)=지난 11월 30일 제3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台燮(62년 工大卒·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 제1부회장)=지난 12월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0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사회복지·봉사부문)을 수상함.

▲鄭興淑(63년 家政大卒·중앙대 교수·한국복식학회 회장)=지난 12월 2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2 월드컵대회를 빛낸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음.

▲金聖吉(64년 法大卒·변호사·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지

난 12월 10일 제5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법무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金 旻(64년 音大卒·모교 음대 학장)=지난 12월 3일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0회 우경문화예술상(음악부문)을 수상함.

▲閔丙九(65년 工大卒·모교 의공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사와 국제산업협력재단이 공동주최한 제5회 산업협력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음.

▲吳世和(65년 文理大卒·한국화학연구원 응용화학연구부장)=지난 12월 20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에서 진흥상을 받음.

▲李在祥(65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지난 12월 10일 제5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법무부로부터 황조 근정훈장을 받음.

▲車正一(65년 法大卒·법무법인 화백 고문변호사)=오는 1월 20일 서울고충동창회 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을 수상한다.

▲李柱晟(65년 大學院卒·성신여대 교수)=지난 11월 13일 독일 Reutlingen대에서 「Friedrich List Medal」을

받음.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지난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대산문학상(시부문)을 수상함.

▲朴贊龍(67년 師大卒)=지난 12월 4~8일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 「2002년 서울 국제발명 전시회」에서 금상과 두 개 부문 은상을 수상함.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챔버앙상블 대표)=지난 12월 7일 동송동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한국예술평론

가협의회가 수여하는 2002 올해의 최우수예술인상(음악부문)을 수상함.

▲金曉明(68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2월 12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冽巖 朴鍾鴻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제21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함.

▲金榮中(68년 藥大卒·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2월 20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

연구소가 주관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에서 이

학상을 받음.

▲朴貴媛(72년 醫大卒·모교 의

편집주간식

새해를 맞아 불러보는 우리의 校歌

Moderato

이 병 기 작사
현 제 명 작곡

가 슬 마 다 성 스 러 운 이 - 념 을 품 - 고
단 일 해 온 말 올 쓰 는 조 - 출 한 겨 - 레

이 세 상 의 사 는 진 리 는 찾 는 이 길 을
창 조 하 기 좋 아 하 는 명 석 한 머 리

씩 씩 하 게 나 아 가 는 젊 은 오 뉘 들
새 문 화 와 새 생 명 을 이 루 어 가 며

이 겨 레 와 이 나 라 의 크 나 큰 보 람
줄 겨 하 고 사 랑 하 는 우 리 의 조 국

뛰 어 나 는 인 재 - 들 - 이 다 모 여 들 어
뛰 어 나 는 인 재 - 들 - 이 다 모 여 들 어

더 욱 더 욱 용 심 하 는 서 울 대 학 교
온 누 리 에 빛 을 내 는 서 울 대 학 교

받음.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지난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대산문학상(시부문)을 수상함.

▲朴贊龍(67년 師大卒)=지난 12월 4~8일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 「2002년 서울 국제발명 전시회」에서 금상과 두 개 부문 은상을 수상함.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챔버앙상블 대표)=지난 12월 7일 동송동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한국예술평론

가협의회가 수여하는 2002 올해의 최우수예술인상(음악부문)을 수상함.

▲金曉明(68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2월 12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冽巖 朴鍾鴻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제21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함.

▲金榮中(68년 藥大卒·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2월 20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

연구소가 주관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에서 이

학상을 받음.

▲朴貴媛(72년 醫大卒·모교 의

가협의회가 수여하는 2002 올해의 최우수예술인상(음악부문)을 수상함.

▲金曉明(68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2월 12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冽巖 朴鍾鴻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제21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함.

▲金榮中(68년 藥大卒·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2월 20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

연구소가 주관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에서 이

학상을 받음.

▲朴貴媛(72년 醫大卒·모교 의

학상을 받음.

▲朴貴媛(72년 醫大卒·모교 의



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6일 연세의료원 알렌관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의학의료부문)을 수상함.

▲金鍾勳(73년 工大卒·한미파슨스 대표)=



지난 12월 2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2002년 한·일 월드컵 관련 공로자 훈·포장 전수식에서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공로로 체육포장을 받음.

▲鄭泰煥(74년 師大卒·문화관광부 차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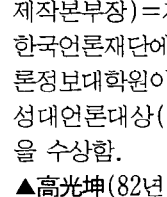
지난 12월 23일 2002 한·일 월드컵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11월 27일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李南基(76년 大學院卒·SBS 제작본부장)=



지난 12월 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이 수여하는 제2회 성대언론대상(동문언론인부문)을 수상함.

▲高光坤(82년 醫大卒·가천의대 교수)=



지난 12월 23일 모교 병원 임상 의학연구소에서 열린 모교 의대 내과동문

회 모임에서 제4회 함춘내과 학술상을 수상함.

▲金大植(85년 自然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



지난 12월 3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6회 젊은 과학자상(물리학과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姜訓(93년 社會大卒·한국일보 기자)=

지난 12월 16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12회 환경인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함.

▲홍영인(96년 美大卒·조각가)=

오는 2월 19일 관훈동 모란 갤러리에서 석남미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석남미술상을 수상하며, 25일까지 작품전을 갖는다.

▲李重根(5기 AMP·부영 회장)=

지난 12월 2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임대주택 보급 및 전국 50여 개



학교에 기숙사와 강당 등 교육시설을 지어 기증한 공로로 중앙대로부터 제10회 「참 경영인상」을 수상함.

▲張興淳(44기 AMP·터보테크 사장)=

지난 12월 24일 롯데호텔에서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정한 제1회 올해의 테크노CEO상을 수상함.

▲李敬俊(50기 ACAD·KTF 사장)=

지난 12월 16일 연세의료원 알렌관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정보통신부문)을 수상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이동·선임

▲李承宇(63년 工大卒·성신여대 외래교수)=



지난 12월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4~6일 건설회관에서 「제3회 건설 CALS/EC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洪允杓(64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

지난 12월 17일 열린 국어학회 제29회 전국학술대회 겸 평의원회의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됨.

▲尹汝民(64년 商大卒·美Seton Hall대 국제금융 교수)=

최근 4년간 유엔 산하기구인 훈련 및 연구담당 기관(UNITAR)에서 학술담당 고문으로 활약한 공로로 Senior Special Fellow에 임명됐으며, 일본 히로시마에 아태지역 UNITAR센터 건립을 책임지게 됨.

▲金湧精(65년 文理大卒·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임부회장)=

지난 12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케이블위성방송협회(CASBAA) 연차총회에서 동북아담당 부회장에 선임됨.

▲安三煥(66년 文理大卒·모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지난 12월 14일 성균관대 6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독어독문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

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李一恒원장

세계 펠로우 3개 부문에 추대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李一恒(70년 工大卒)원장(사진)이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7일 미국 광학회(OSA)와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각각 최고의 명예인 펠로우(Fellow)에 추대됐다.

지난 1996년 영국 왕립 전기공학회(IEE)의 펠로우에 추대된 바 있는 李동문은 이번 추대로 세계 펠로우 3관에 오른 셈이다.

「펠로우」는 가장 탁월한 세계 정상급의 학술업적과 공헌 및 지도적 학술지위를 성취한 극히 소수의 석학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이다.

정보통신과 반도체의 기초과학과 공학에서 세계 선도적 개척과 학술공헌을 인정받은



李동문은 모교 전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예일대 응용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프린스턴대, AT&T를 거치며 3백50여 편의 국제논문과 국제 기조강연, 초청강연을 발표했으며, 광범위한 인연을 받고 있다.

이번 펠로우 시상식은 오는 3월 25일 미국 애틀란타시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거행된다. (變)

▲李鍾受(71년 文理大卒·한성대 대학원장)=

지난 12월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에 취임함.

▲趙錫俊(77년 自然大卒·미디어전략연구소장)=

최근 세계적인 PR회사 플래시먼힐러드 코리아 상임고문에 위촉됨.

▲鄭俊基(77년 醫大卒·모교 핵의학교실 교수)=

지난 11월 27일 창립된 한국PET(양전자단층촬영)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됨.

▲全相敦(79년 農大卒·前스포츠투데이 편집국장)=

지난 12월 3일 스포츠 컨설팅과 마케팅 전문회사인 (주)더스포츠 사장

으로 취임함.

▲柳金祿(80년 行大院卒·군산대 교수)=

지난 11월 30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취임함.

▲高永會(81년 工大卒·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지난 11월 22일 열린 대한기술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

에 선출됨.

▲姜讚秀(87년 自然大卒·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지난 12월 5일 한국환경기자클럽 총회

에서 제15대 회장에 선출됨.

▲吳世賢(87년 工大卒·인젠 컨설팅본부장)=최근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의 본부장 모임인 정보보호전문업체실무협의회 회장에 선출됨.

▲薛均泰(90년 行大院卒·前국민신용카드 수석부사장)=지난 12월 10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됨.

▲姜武燮(52기 ACAD·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지난 12월 13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제30차 연차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李壽萬(1기 APICP·서울고검 사무국장)=지난 12월 11일 법무부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임명됨.

행사·출간

▲白樂皓(52년 藝術大卒·모교 명예교수·청운대 초빙교수)=최근 스카라티의 소나타, 랑게의 꽃노래, 슈베르트의 즉흥곡 등 14개 작품이 수

록된 피아노 독주 음반을 출판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6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여성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소외된 여성의 건강지원사업 등에 쓰일 「씨앗기금(가천모성보호기금)」 1천10만원을 기탁함. 또 16일 전북 전주코아리 베라호텔에서 전라교 황석연 교장 등 3명에게 제6회 전북교육대상을 시상함.

▲崔喜準(59년 法大卒·한국문예진흥원 감사·가수)=지난 12월 6일 충북 영동 황간전주교회에서 수재민 1천여 명을 초청,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콘서트를 가짐.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학회 회장)=지난 12월 27일 광운대 참빛관 국제회의실에서 「김대중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와 차기 정

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12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함.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유티앙상블 음악감독)=지난 12월 15일 예술의전당 리스아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皮虎英(83년 音大卒)·동문, 비올리스트 金到妍(92년 音大卒)·동문 등과 함께 서울유티앙상블 송년음악회를 가짐.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지난 12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회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총회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동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全奉求(68년 音大卒·경원대 교수)=지난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가곡 「나그네」 「진달래」 「산유화」 등으로 독창회를 가짐.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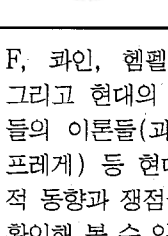
개발연구원장)=지난 12월 26일 롯데호텔에 메탈드롬에서 모교 鄭雲燮총장을 초청, 「한국의 미래와 서울대학교의 새 비전」을 주제로 제128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金順杜(69년 獸醫大卒·한국야쿠르트 사장)=지난 12월 26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함.



▲李啓卓(72년 行大院卒·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장·경희대 객원교수)=지난 11월 9일 「국가재해보상 대책방안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지난 12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2년 방송기자클럽

개발연구원장)=지난 12월 26일 롯데호텔에 메탈드롬에서 모교 鄭雲燮총장을 초청, 「한국의 미래와 서울대학교의 새 비전」을 주제로 제128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金順杜(69년 獸醫大卒·한국야쿠르트 사장)=지난 12월 26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함.

▲李啓卓(72년 行大院卒·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장·경희대 객원교수)=지난 11월 9일 「국가재해보상 대책방안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지난 12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2년 방송기자클럽

개발연구원장)=지난 12월 26일 롯데호텔에 메탈드롬에서 모교 鄭雲燮총장을 초청, 「한국의 미래와 서울대학교의 새 비전」을 주제로 제128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보도상 시상식을 가짐.

▲李永泰(74년 行大院卒·대구미래대학 교수·한국법학회 회장)=지난 12월 20일 부산신라대 세미나실에서 「IT산업과 법」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가짐.

▲曹秀美(81년 音大入·소프라노)=지난 12월 28~29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2002 조수미 마이 스토리 - 겨울 밤의 고백」을 개최, 피아노 연주 솜씨를 선보임.

▲崔鍾根(88년 工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지난 12월 6일 심해에서 油井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조절 관리하는 기술인 「수중양수 시추 시스템의 유정제어법」을 해외 연구진과 공동 개발, 최근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밝힘.

▲崔鍾根(88년 工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지난 12월 6일 심해에서 油井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조절 관리하는 기술인 「수중양수 시추 시스템의 유정제어법」을 해외 연구진과 공동 개발, 최근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밝힘.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 김봉환변호사 회고록

—金鳳煥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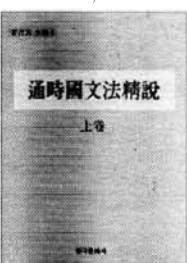
한양합동법률사무소 金鳳煥(50년 法大卒) 변호사가 4선 국회의원 시절과 50년 변호사 생활의 편린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총 5부로 나눠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모교 법대를 입학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야기부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친 6~9대 국회의원 활동상과 정계 은퇴후 안국화재, 보험공사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바쁜 나날을 보낸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사刊·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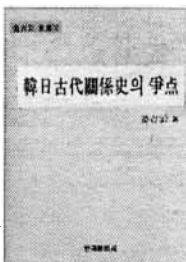
■ 通時國文法精說(上·下)

韓日古代關係史의 爭点

—姜吉云 著



국어학 및 비교언어학자인姜吉云(54년 文理大卒·前수원대 교수)·동문 이



「통시국문법정설」을 통해 한국어와 한민족의 뿌리를 처음으로 밝혀, 종래의 일타이어족설을 부인하고 한국어는 길약어와 동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조어에 의해 해독되어온 향가 해독을 신라어로 재구성하여 비로소 향가해독다운 해독을 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에 대한 종래의 잘못된 인식 즉 이중모음설 및 어두자음군설을 부인하고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단모음 및 어두단자음임을 비교언어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일고대관계사의 쟁점」은 한·일의 역사바로잡기에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왜국은 가락국의 분국이었고 가락국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분국이였다는 사실을 저술하고 있다. 임나일본부, 광개토왕비문, 이소노가미시국의 칠지도 등 한·일 고대관계사의 쟁점을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곁들여 명쾌하게 해결했다. <한국문화사刊·통시국문법정설 값 각권 30,000원, 한·일 고대관계사의 쟁점 값12,000원>

■ 世界文化史概論

—申翰雨 著

경기대 교수를 역임한 申翰雨(55년 師大卒)·동문이 고대사



회의 전개에서부터 동아시아 민족의 변동까지 세계문화사 전반을 개설한 저서를 펴냈다. 이 책은 동·서양사에 대해 시대별로 서술돼 있으며, 인도의 고전문명을 비롯해 아시아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국과 그리스의 고전문명을 기술하고 근대유럽과 현대사회까지 세계문화사를 풀어냈다. <창문각刊·값12,000원>

■ 수학의 철학

—朴世熙 옮김



예교수·本報 論說委員)·동문인 포을 베나세랴 교수와 힐러리 퍼드남 교수가 엮은 20세기 「수학기초론」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집대성한 이론서를 번역 출간했다.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등 수학의 기초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이론적 움직임(러셀, 브라우워, 힐버트 등), 수학의 본성과 대상 그리고 진리의 문제를 다룬 철학자들의 견해(커리, 퍼드남, 카르

F, 콰인, 험펠, 에이어 등), 그리고 현대의 유명한 수학자들의 이론들(괴델, 푸앵카레, 프레게) 등 현대 수학의 이론적 동향과 쟁점들을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총 1천5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수리철학, 논리학, 현대수학사상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카넷刊·값45,000원>

■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元佑鉉 外



운 교과목으로 등장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하려고 각 전문분야의 저자들과 함께 공동 집필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뉴미디어 기술발전예 따른 정보매체와 정보사회를 조명하고 사회 각 분야에 침투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자리잡은 인터넷의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 <박영사刊·값20,000원>

■ 난독증의 이해

—申敏燮 譯

모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리상담 및 학습장애



를 치료하고 있는 申敏燮(82년 家政大卒·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동문이 최근 읽기

장애아를 둔 부모와 치료자를 위한 지침서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한 매리온 샌더스 박사가 펴낸 책으로, 난독증의 특성 및 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술해 놓았다. <학지사刊·값13,000원>

公演

■ 洪惠道 피아노독주회

—1월 24일 예술의전당



독일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洪惠道(85년 音大卒·예원예고 감사)·동문이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E장조 op. 109」,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회 장 단

▲ 명예회장 金在淳=30만원
 ▲ 회장 林光洙=500만원
 ▲ 상임부회장 孫一根=50만원
 ▲ 부회장 高炳佑=50만원
 ▲ 부회장 李世中=50만원
 ▲ 부회장 李金器=100만원
 ▲ 부회장 尹世榮=100만원
 ▲ 부회장 金學俊=50만원

관 악 회

▲ 이사 明泰鉉=7만원

상임이사

▲ 朴明子 간호대동창회장=20만원
 ▲ 崔翔五 관악부역인회장=20만원

평생회비

▲ 고동일(97년 工大卒)=20만원
 ▲ 김광교(65년 工大卒)=20만원
 ▲ 김기정(68년 工大卒)=20만원
 ▲ 김동조(77년 音大卒)=20만원
 ▲ 김백희(74년 音大卒)=20만원
 ▲ 김법성(84년 醫大卒)=20만원
 ▲ 김성태(71년 農大卒)=20만원
 ▲ 김원서(81년 工大卒)=20만원
 ▲ 남기병(56년 師大卒)=20만원
 ▲ 문상준(93년 工大卒)=20만원
 ▲ 박용욱(69년 文理大卒)=30만원
 ▲ 손한기(73년 齒大卒)=20만원
 ▲ 안호준(87년 大學院卒)=20만원
 ▲ 육기진(21기 AMP)=20만원
 ▲ 우인성(62년 工大卒)=50만원
 ▲ 우제환(73년 農大卒)=20만원
 ▲ 유상열(82년 農大卒)=20만원
 ▲ 윤홍철(81년 人文大卒)=20만원
 ▲ 이가영(93년 醫大卒)=20만원
 ▲ 이광용(85년 人文大卒)=20만원
 ▲ 이덕록(79년 農大卒)=20만원
 ▲ 이상희(74년 文理大卒)=20만원
 ▲ 이승호(86년 工大卒)=20만원
 ▲ 이원영(73년 文理大卒)=20만원
 ▲ 장현갑(73년 工大卒)=20만원
 ▲ 정경해(88년 醫大卒)=20만원
 ▲ 조국광(79년 農大卒)=20만원
 ▲ 추지석(64년 工大卒)=20만원
 ▲ 황성엽(86년 經營大卒)=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 강인선⁷⁶ ▲ 조응래⁷⁷

◇社會科學大學

▲ 박만순⁸¹

◇看護大學

▲ 김채숙⁶⁶ ▲ 이명선⁷⁵ ▲ 조동란⁷⁰

◇經營大學

▲ 김해석⁷⁸ ▲ 하부열⁷⁸

◇工科學大學

▲ 강경찬⁷⁵ ▲ 강정환⁷⁰ ▲ 고인석⁶⁴
 ▲ 김규갑⁶¹ ▲ 김노수⁵² ▲ 김대웅⁶⁷
 ▲ 김동주⁷³ ▲ 김인상⁷¹ ▲ 김정구⁶⁹
 ▲ 김종식⁷⁷ ▲ 김지섭⁵⁸ ▲ 박성훈⁶³
 ▲ 박승빈⁶⁹ ▲ 변재국⁶⁵ ▲ 송지오⁷⁰
 ▲ 신재철⁷⁰ ▲ 심우갑⁶⁸ ▲ 안상영⁶³

회비납부 슬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2년 10월 11일~11월 5일 · 一般: 2002년 10월 9일~10월 31일〉

▲ 오화석⁵⁵ ▲ 유봉환⁶¹ ▲ 유홍렬⁶⁴
 ▲ 이경운⁶¹ ▲ 이근모⁷⁹ ▲ 이기화⁵⁷
 ▲ 이동호⁷² ▲ 이선일⁶⁵ ▲ 이재건⁶³
 ▲ 이중홍⁵⁹ ▲ 이창목⁷⁶ ▲ 이흥순⁵⁶
 ▲ 전웅진⁷⁰ ▲ 진대제⁷⁴ ▲ 최선주⁶³
 ▲ 황인석⁷²

◇農業生命科學大學

▲ 권대욱⁷³ ▲ 김기용⁶⁸ ▲ 김주형⁷³
 ▲ 박순직⁷¹ ▲ 백정기⁷² ▲ 오봉국⁶²
 ▲ 유영준⁶⁵ ▲ 유일웅⁷¹ ▲ 이남식⁷⁸
 ▲ 이돈구⁶⁹ ▲ 이상영⁶⁹ ▲ 이영호⁶⁹
 ▲ 이정환⁷² ▲ 장석호⁷⁴ ▲ 조보환⁷²
 ▲ 한갑준⁵⁶ ▲ 홍순홍⁶⁴

◇文理科大學

▲ 김재실⁶⁸ ▲ 김하진⁶² ▲ 노재식⁵⁷
 ▲ 박기덕⁷⁴ ▲ 박성훈⁷³ ▲ 송업교⁶⁵
 ▲ 송진혁⁶⁵ ▲ 신효순⁶¹ ▲ 오영일⁶⁵
 ▲ 우남규⁷² ▲ 원용대⁵³ ▲ 이경형⁷⁰
 ▲ 이두종⁵¹ ▲ 이연희⁵⁵ ▲ 이해찬⁷²
 ▲ 이형구⁶³ ▲ 임희섭⁵⁹ ▲ 장희익⁶¹
 ▲ 정서구⁶⁹ ▲ 정준호⁶² ▲ 최경락⁷⁵

◇法科學大學

▲ 강용현⁷⁸ ▲ 권순엽⁸⁰ ▲ 김재규⁵³
 ▲ 김종식⁷² ▲ 김철수⁵⁶ ▲ 동상홍⁶⁸
 ▲ 문규상⁷⁸ ▲ 문인구⁵⁰ ▲ 박광수⁷¹
 ▲ 박길수⁷⁴ ▲ 박만호⁶² ▲ 박원표⁷⁶
 ▲ 박종성⁷⁷ ▲ 박태웅⁶⁴ ▲ 봉종현⁶¹
 ▲ 서 성⁶⁴ ▲ 서규택⁵⁵ ▲ 서희석⁷⁵
 ▲ 손수익⁵⁶ ▲ 송진현⁷⁵ ▲ 신기남⁷⁴
 ▲ 신성순⁶³ ▲ 안보영⁷² ▲ 안종윤⁵⁵
 ▲ 양명조⁷³ ▲ 여동영⁶⁴ ▲ 오제세⁷²
 ▲ 원희룡⁸⁹ ▲ 윤경식⁸⁵ ▲ 윤덕순⁶³
 ▲ 윤재기⁶⁸ ▲ 이 돈⁶⁵ ▲ 이근식⁶⁹
 ▲ 이낙연⁷⁴ ▲ 이근규⁶⁵ ▲ 이동성⁶⁶
 ▲ 이문재⁶⁵ ▲ 이정환⁷⁵ ▲ 이지수⁶⁵
 ▲ 이철규⁷⁰ ▲ 장재식⁵⁶ ▲ 전웅진⁵⁷
 ▲ 최명선⁶³ ▲ 한경구⁶⁵ ▲ 한동우⁷⁰
 ▲ 한정길⁶⁹ ▲ 현명관⁶³

◇師範大學

▲ 고병교⁷⁶ ▲ 김기곤⁵⁶ ▲ 김동길⁶¹
 ▲ 노두호⁵⁵ ▲ 문용린⁷¹ ▲ 백린섭⁷¹
 ▲ 신형범⁷⁸ ▲ 이규석⁷³ ▲ 이환복⁶⁵
 ▲ 이희용⁶⁴ ▲ 정철정⁷¹

◇商科學大學

▲ 강태순⁷² ▲ 고학모⁶⁰ ▲ 권혁대⁵⁷
 ▲ 김선중⁶⁰ ▲ 김종호⁵⁸ ▲ 김흥구⁷⁰
 ▲ 노재승⁶¹ ▲ 박상은⁶¹ ▲ 박영일⁶³
 ▲ 서정원⁶⁸ ▲ 손병두⁶⁴ ▲ 손석주⁵²
 ▲ 우의제⁶⁷ ▲ 원국희⁵⁷ ▲ 위기철⁶⁶
 ▲ 위성복⁶⁴ ▲ 이 연⁶³ ▲ 이길우⁵³
 ▲ 이봉서⁵⁵ ▲ 이상득⁶¹ ▲ 이승섭⁵⁷
 ▲ 이진설⁶¹ ▲ 이태규⁷⁵ ▲ 이형직⁷¹
 ▲ 조문규⁶¹ ▲ 조의진⁶⁵ ▲ 차형동⁶¹
 ▲ 허남각⁶⁰

◇生活科學大學

▲ 박복순⁷⁴ ▲ 우경자⁶⁵

◇獸醫科學大學

▲ 박근식⁵⁷ ▲ 박기복⁵⁹ ▲ 정대연⁵⁹
 ▲ 정원공⁵⁷

◇藥學大學

▲ 김상조⁵⁸ ▲ 김수경⁶¹ ▲ 김영택⁶⁵
 ▲ 문장규⁷⁸ ▲ 박종길⁷⁵ ▲ 유용근⁵⁸

▲ 유충규⁷⁴ ▲ 최창신⁶⁵

◇音樂大學

▲ 김봉임⁵⁹ ▲ 양은희⁷⁵

◇醫科學大學

▲ 고원순⁷⁴ ▲ 김명주⁶² ▲ 김성권⁷⁴
 ▲ 김성연⁷⁴ ▲ 박대관⁶¹ ▲ 박상용⁶³
 ▲ 박창서⁷⁷ ▲ 이명근⁷⁴ ▲ 이상완⁶¹
 ▲ 이진오⁶⁴

◇齒科學大學

▲ 강영만⁸¹ ▲ 김상숙⁷⁷ ▲ 김왕국⁵⁹
 ▲ 박상규⁷³ ▲ 박형기⁵⁹ ▲ 이금룡⁶⁴
 ▲ 이기택⁶⁹ ▲ 이시우⁶⁵ ▲ 정상주⁶²
 ▲ 조달문⁶⁸ ▲ 최경명⁵⁹ ▲ 현기용⁸³
 ▲ 황영구⁷⁸

◇大學院

▲ 이기수⁷² ▲ 임대윤⁸⁷ ▲ 정문기⁸³
 ▲ 최석문⁷⁵

◇經營大學院

▲ 김정태⁶⁸ ▲ 문국현⁷⁷

◇教育大學院

▲ 송향섭⁶⁶

◇保健大學院

▲ 배길한⁷⁷ ▲ 이선동⁸⁸ ▲ 이양재⁸²

◇新聞大學院

▲ 안병찬⁷⁵

◇行政大學院

▲ 김기병⁶⁷ ▲ 정영섭⁶⁸ ▲ 정우택⁷⁹
 ▲ 조남호⁷³

◇環境大學院

▲ 강길부⁸⁴

◇최고경영자과정

▲ 박상규⁸¹

◇최고산업전략과정

▲ 이순종⁵

일 반

◇人文大學

▲ 강인자⁸⁶ ▲ 김경철⁸⁹ ▲ 김사인⁸⁰
 ▲ 김상명⁸⁵ ▲ 김상호⁹⁵ ▲ 김영준⁷⁸
 ▲ 김학래⁷⁸ ▲ 김효진⁹⁸ ▲ 문안나⁸⁶
 ▲ 방국연⁹¹ ▲ 배희철⁸⁷ ▲ 서선령⁹²
 ▲ 신동진⁹³ ▲ 오세중⁹¹ ▲ 유국환⁸⁵
 ▲ 윤대근⁸⁵ ▲ 이경호⁸⁸ ▲ 이수정⁹⁹
 ▲ 이승렬⁷⁹ ▲ 이종현⁹⁵ ▲ 이지흥⁹¹
 ▲ 장석환⁹⁰ ▲ 정준호⁸⁹ ▲ 조연수⁹³
 ▲ 조윤신⁸⁷ ▲ 조종도⁸⁶ ▲ 조해영⁸⁸
 ▲ 최도빈⁹⁰ ▲ 홍기원⁹¹

◇社會科學大學

▲ 강동호⁸⁶ ▲ 강원택⁸⁵ ▲ 강일진⁹⁰
 ▲ 강종표⁸³ ▲ 고성훈⁹⁰ ▲ 고승현⁸⁹
 ▲ 광현주⁹⁰ ▲ 권규태⁹¹ ▲ 권오혁⁸⁵
 ▲ 권용발⁸¹ ▲ 권혁진⁸⁹ ▲ 김동선⁸⁰
 ▲ 김선기⁸⁶ ▲ 김승기⁷⁶ ▲ 김연주⁹⁷
 ▲ 김용재⁷⁹ ▲ 김우진⁸⁷ ▲ 김인환⁸⁸

▲ 김종성⁸⁸ ▲ 김진기⁸⁵ ▲ 김학영⁸⁴
 ▲ 김현아⁹³ ▲ 김흥구⁸⁵ ▲ 문승현⁸²
 ▲ 문우식⁸³ ▲ 박석인⁷⁶ ▲ 박정원⁸³
 ▲ 박해준⁹² ▲ 변창룡⁷⁹ ▲ 송재조⁹¹
 ▲ 심한보⁸⁶ ▲ 안광조⁷⁹ ▲ 연승호⁹¹
 ▲ 오병상⁸⁵ ▲ 오영수⁸³ ▲ 우영진⁸⁶
 ▲ 유근배⁷⁷ ▲ 유성록⁸⁶ ▲ 윤계근⁸²
 ▲ 은성수⁸⁴ ▲ 이가영⁹⁶ ▲ 이강국⁸⁴
 ▲ 이경재⁸⁷ ▲ 이광훈⁸⁹ ▲ 이동구⁹⁰
 ▲ 이대훈⁸⁹ ▲ 이명섭⁷⁹ ▲ 이명진⁸⁹
 ▲ 이상원⁸³ ▲ 이석호⁸⁵ ▲ 이순철⁷⁹
 ▲ 이은호⁸⁹ ▲ 이춘규⁸⁸ ▲ 이호곤⁸⁵
 ▲ 임규옥⁸³ ▲ 임유철⁸⁸ ▲ 임진석⁸⁸
 ▲ 장덕주⁷⁹ ▲ 장운종⁸² ▲ 정민호⁹⁰
 ▲ 정삼봉⁷⁸ ▲ 정시영⁸⁹ ▲ 정훈수⁸⁹
 ▲ 조동환⁸⁶ ▲ 주광열⁸¹ ▲ 지청산⁸⁷
 ▲ 진승권⁸⁴ ▲ 피정선⁸¹ ▲ 한대우⁷⁹
 ▲ 한상덕⁹¹ ▲ 한승미⁸⁶ ▲ 한형중⁸⁵
 ▲ 함준표⁸⁶ ▲ 현봉수⁹⁰ ▲ 황열현⁸²
 ▲ 황대연⁹⁰

◇自然科學大學

▲ 고형석⁸⁵ ▲ 김병국⁸³ ▲ 김태순⁸³
 ▲ 김형권⁸⁷ ▲ 박덕배⁷⁹ ▲ 박동완⁷⁷
 ▲ 백병화⁷⁹ ▲ 서환수⁹⁰ ▲ 석관수⁸⁸
 ▲ 손병기⁷⁸ ▲ 양형진⁸¹ ▲ 오병두⁸¹
 ▲ 유환희⁸⁸ ▲ 윤형석⁹⁵ ▲ 이광세⁷⁸
 ▲ 이기형⁸⁷ ▲ 이동한⁸² ▲ 이재원⁸³
 ▲ 임기건⁷⁶ ▲ 전중환⁹⁶ ▲ 정철희⁷⁹
 ▲ 조남철⁹² ▲ 조상욱⁸⁸ ▲ 차갑순⁷⁸
 ▲ 최영만⁹⁶ ▲ 현종갑⁸⁹ ▲ 홍미희⁸⁶

◇看護大學

▲ 김경애⁶⁹ ▲ 김남련⁵⁶ ▲ 김명자⁵⁹
 ▲ 김묘경⁹⁰ ▲ 김영아⁸⁸ ▲ 남은숙⁷⁹
 ▲ 노윤구⁸⁹ ▲ 노혜숙⁷⁹ ▲ 박영립⁷⁷
 ▲ 엄길순⁷³ ▲ 우경선⁸¹ ▲ 유명숙⁷⁸
 ▲ 이명혜⁷⁹ ▲ 이은남⁸¹ ▲ 전귀능⁸⁷
 ▲ 채명아⁸⁶ ▲ 최명화⁵⁵

◇經營大學

▲ 고현진⁸¹ ▲ 구자일⁸³ ▲ 김기태⁷⁸
 ▲ 김범수⁹⁰ ▲ 김병조⁹⁷ ▲ 김재일⁷⁶
 ▲ 김준호⁸⁸ ▲ 김형희⁸³ ▲ 김흥국⁷⁹
 ▲ 노정익⁷⁶ ▲ 박관희⁸⁰ ▲ 박준홍⁸⁸
 ▲ 박철수⁹¹ ▲ 석완주⁹⁰ ▲ 송기형⁸⁰
 ▲ 송윤환⁸⁷ ▲ 우스미⁹⁰ ▲ 윤정환⁸⁶
 ▲ 임종민⁸⁰ ▲ 지창훈⁹⁹ ▲ 최은석⁸⁹
 ▲ 최형립⁷⁹ ▲ 한정목⁸⁰

◇工科學大學

▲ 강광용⁷⁵ ▲ 강병원⁷³ ▲ 강연준⁸⁸
 ▲ 강욱형⁷⁵ ▲ 강승순⁷⁵ ▲ 강현태⁷³
 ▲ 고국원⁶⁵ ▲ 고시현⁷⁵ ▲ 고일룡⁵⁷
 ▲ 광병현⁷¹ ▲ 구경본⁷² ▲ 구정기⁷⁷
 ▲ 권승한⁶⁶ ▲ 권혁정⁵⁶ ▲ 김 현⁷⁴
 ▲ 김갑순⁵⁶ ▲ 김건중⁷⁵ ▲ 김관형⁸³
 ▲ 김광수⁸³ ▲ 김광신⁷⁹ ▲ 김광연⁸⁸
 ▲ 김규석⁶⁴ ▲ 김대근⁹³ ▲ 김대식⁷⁷
 ▲ 김도완⁹⁵ ▲ 김동관⁸² ▲ 김동일⁸²
 ▲ 김락성⁶⁰ ▲ 김명린⁶⁵ ▲ 김민석⁹⁶
 ▲ 김병협⁷² ▲ 김삼기⁸⁴ ▲ 김상섭⁵⁶
 ▲ 김상태⁶⁵ ▲ 김선민⁹⁷ ▲ 김세환⁶⁸
 ▲ 김수홍⁷⁴ ▲ 김영진⁷⁰ ▲ 김용세⁸³
 ▲ 김자영⁷⁸ ▲ 김장영⁹² ▲ 김재풍⁷⁰
 ▲ 김정구⁷¹ ▲ 김정기⁶⁸ ▲ 김정수⁷¹
 ▲ 김정웅⁶⁴ ▲ 김정인⁹⁸ ▲ 김종명⁸²
 ▲ 김종식⁸⁴ ▲ 김종철⁸⁰ ▲ 김주연⁸⁸
 ▲ 김중환⁷⁴ ▲ 김철호⁷⁶ ▲ 김충엽⁶¹
 ▲ 김태욱⁹⁴ ▲ 김형근⁹⁷ ▲ 김형배⁸⁹

▲ 김홍곤⁸⁰ ▲ 김홍재⁸⁷ ▲ 김흥렬⁷⁴
 ▲ 김희준⁷¹ ▲ 나성웅⁷⁶ ▲ 남경철⁹⁷
 ▲ 노승규⁸⁶ ▲ 류도형⁹¹ ▲ 맹 섭⁶⁵
 ▲ 문동민⁶¹ ▲ 문승현⁷⁹ ▲ 문용우⁹²
 ▲ 문일경⁸⁴ ▲ 문제춘⁷⁸ ▲ 문조권⁷²
 ▲ 민병선⁵⁸ ▲ 민상홍⁹⁶ ▲ 박 순⁷⁸
 ▲ 박기현⁶⁹ ▲ 박두화⁵⁵ ▲ 박병욱⁸⁷
 ▲ 박성양⁵⁶ ▲ 박승웅⁶⁵ ▲ 박영건⁶⁹
 ▲ 박영춘⁶⁶ ▲ 박응준⁸² ▲ 박재기⁵⁶
 ▲ 박정문⁷⁹ ▲ 박정훈⁸⁴ ▲ 박종일⁶¹
 ▲ 박준범⁸⁵ ▲ 박희재⁸³ ▲ 방교윤⁷¹
 ▲ 배근호⁷⁰ ▲ 배상수⁹³ ▲ 배영훈⁷⁹
 ▲ 배원재⁵⁷ ▲ 배종서⁸⁶ ▲ 백만기⁷⁶
 ▲ 백원필⁸² ▲ 백홍열⁷⁵ ▲ 변대규⁸³
 ▲ 변수근⁵⁷ ▲ 서강덕⁷⁹ ▲ 서남규⁷⁶
 ▲ 서봉수⁵⁶ ▲ 손승룡⁷⁴ ▲ 손진영⁷⁵
 ▲ 손장근⁵³ ▲ 송춘영⁷¹ ▲ 송호근⁷⁶
 ▲ 신 영⁶⁵ ▲ 신덕철⁷² ▲ 신동현⁸¹
 ▲ 신선호⁶⁶ ▲ 신수철⁷⁰ ▲ 신희균⁵¹
 ▲ 심재건⁷⁷ ▲ 안재영⁶⁶ ▲ 안희경⁹⁸
 ▲ 양동률⁵⁴ ▲ 양순호⁷⁷ ▲ 양영호⁸⁹
 ▲ 염병대⁶⁹ ▲ 염영호⁷³ ▲ 오석동⁶³
 ▲ 오영호⁸⁰ ▲ 이상룡⁷⁶ ▲ 원윤상⁸⁰
 ▲ 유건환⁶² ▲ 유광택⁸³ ▲ 유교환⁶¹
 ▲ 유성렬⁷⁵ ▲ 윤맹현⁷⁰ ▲ 윤영길⁸¹
 ▲ 윤종만⁵⁶ ▲ 윤창변⁷⁸ ▲ 이건이⁶⁷
 ▲ 이내선⁵⁷ ▲ 이대선⁸⁵ ▲ 이대성⁷⁹
 ▲ 이대혁⁹¹ ▲ 이덕영⁸¹ ▲ 이동규⁶³
 ▲ 이동녕⁶¹ ▲ 이명선⁶⁰ ▲ 이병록⁸⁵
 ▲ 이상현⁷⁶ ▲ 이상훈⁸³ ▲ 이석형⁷⁴
 ▲ 이상우⁹⁷ ▲ 이영배⁷⁴ ▲ 이영우⁷⁵
 ▲ 이영주⁷⁹ ▲ 이영필⁷¹ ▲ 이용훈⁷⁸
 ▲ 이원표⁷⁶ ▲ 이유봉⁷⁹ ▲ 이운근⁵⁸
 ▲ 이의은⁸⁴ ▲ 이인석⁷⁷ ▲ 이재경⁸⁰
 ▲ 이재윤⁷⁸ ▲ 이정진⁹⁵ ▲ 이종대⁸²
 ▲ 이주협⁸⁸ ▲ 이주형⁹¹ ▲ 이지수⁹⁸
 ▲ 이재우⁸⁵ ▲ 이철화⁵⁶ ▲ 이태근⁷⁸
 ▲ 이태일⁷⁴ ▲ 이택우⁶⁹ ▲ 이학영⁸⁹
 ▲ 이해건⁷⁰ ▲ 임 관⁵² ▲ 임달연⁵⁵
 ▲ 임현태⁸² ▲ 장기욱⁹⁴ ▲ 장성렬⁹³
 ▲ 전동완⁶⁰ ▲ 전성찬⁸⁴ ▲ 전순명⁶³
 ▲ 전윤중⁹¹ ▲ 전찬진⁶⁹ ▲ 전홍우⁷⁴
 ▲ 정 송⁸⁸ ▲ 정두근⁸⁰ ▲ 정무조⁶¹
 ▲ 정무진⁶⁹ ▲ 정방인⁷⁷ ▲ 정수철⁶²
 ▲ 정연원⁵⁶ ▲ 정우상⁵³ ▲ 정우진⁶⁴
 ▲ 정유나⁸² ▲ 정춘길⁶⁵ ▲ 정학진⁹⁶
 ▲ 정형한⁵⁶ ▲ 정휘원⁵⁵ ▲ 조금남⁸⁰
 ▲ 조영곤⁷⁴ ▲ 조영주⁷⁸ ▲ 조인준⁹⁴
 ▲ 조주현⁷⁸ ▲ 조춘식⁷⁵ ▲ 조한모⁶¹
 ▲ 조혜경⁸⁷ ▲ 지인호⁸⁰ ▲ 지찬호⁹³
 ▲ 진송완⁹⁸ ▲ 차동원⁶⁸ ▲ 차진이⁸⁸
 ▲ 최동욱⁶⁵ ▲ 최복철⁷⁵ ▲ 최상돈⁶⁴
 ▲ 최석주⁹⁶ ▲ 최원근⁶⁴ ▲ 최장동⁶⁰
 ▲ 최종근⁸³ ▲ 최태선⁷⁶ ▲ 하민진⁷⁶
 ▲ 한동철⁶⁹ ▲ 허 변⁵⁷ ▲ 현봉섭⁵⁴
 ▲ 홍광표⁶³ ▲ 홍사우⁶⁰ ▲ 홍성수⁸⁶
 ▲ 홍성철⁹¹ ▲ 홍해남⁷⁷ ▲ 황귀남⁸³
 ▲ 황정연⁶⁰ ▲ 황준영⁸³ ▲ 황진석⁸³

◇農業生命科學大學

▲ 강예목⁵⁷ ▲ 고영근⁷⁰ ▲ 고치원⁶⁴
 ▲ 공재영⁸³ ▲ 공재환⁷² ▲ 광유신⁸⁶
 ▲ 구재윤⁵⁸ ▲ 권오완⁶⁰ ▲ 권혁재⁵⁷
 ▲ 김근희⁸⁷ ▲ 김덕환⁷⁸ ▲ 김동호⁵⁵
 ▲ 김두규⁷¹ ▲ 김명혜⁸⁰ ▲ 김명호⁷⁴
 ▲ 김무진⁶⁴ ▲ 김영배⁸⁵ ▲ 김영성⁶⁵
 ▲ 김영주⁷⁵ ▲ 김영희⁶¹ ▲ 김용구⁶¹
 ▲ 김웅배⁶³ ▲ 김재근⁷⁹ ▲ 김정규⁶⁹
 ▲ 김정호⁷⁸ ▲ 김종근⁶⁹ ▲ 김주달⁶⁸
 ▲ 김진수⁷⁵ ▲ 김대규⁶⁵ ▲ 김태호⁸⁵
 ▲ 김태희⁶³ ▲ 김현영

▲서정찬56 ▲설권석58 ▲설명준67
▲성낙구69 ▲성영호56 ▲손병구67
▲손석주80 ▲손종오99 ▲송사일84
▲송춘중59 ▲송현숙77 ▲신경수88
▲신민범92 ▲신부길67 ▲신유성97
▲신일선64 ▲신정균58 ▲신대기70
▲안영수65 ▲안윤준77 ▲안의성60
▲안준길66 ▲양기운69 ▲양범산59
▲양춘웅71 ▲오창식95 ▲우종원71
▲원광식64 ▲원후식62 ▲유영숙70
▲유형우74 ▲윤덕균57 ▲윤필영79
▲이경휘59 ▲이남인59 ▲이동현72
▲이상욱61 ▲이석구72 ▲이성호75
▲이우진68 ▲이원식57 ▲이인호57
▲이재구62 ▲이재영56 ▲이종용79
▲이준배95 ▲이중훈54 ▲이진찬89
▲이철승95 ▲이태호78 ▲이형규89
▲이호진67 ▲이희수84 ▲임동준64
▲장성종64 ▲장영주89 ▲장정동55
▲장창순57 ▲전건영83 ▲전철성70
▲전충직65 ▲정문섭95 ▲정재춘71
▲정진욱62 ▲조대영63 ▲조성일58
▲조성호82 ▲조지흠78 ▲조태호58
▲조한욱57 ▲진현기89 ▲최 철71
▲최관호70 ▲최동규70 ▲최상수71
▲최승호83 ▲최영애67 ▲최영주88
▲최은순82 ▲최정락68 ▲한상익63
▲한한수71 ▲한휘석61 ▲허정수64
▲허장보89 ▲홍의표65

◇文理科大學

▲강신성69 ▲강신항53 ▲강인구63
▲김경환70 ▲김기태68 ▲김리나64
▲김성미68 ▲김성익68 ▲김순섬61
▲김영재61 ▲김옥선56 ▲김용남67
▲김용석72 ▲김용하70 ▲김윤호63
▲김의종70 ▲김지영68 ▲김태린50
▲김한도61 ▲김홍윤68 ▲김홍중65
▲박남서72 ▲박남훈75 ▲박동석74
▲박상규57 ▲박용오70 ▲박윤수51
▲박은수50 ▲박재권75 ▲박정무65
▲박찬일71 ▲반기문70 ▲변상경72
▲복진태74 ▲부유남67 ▲송상용62
▲송철호67 ▲신중성74 ▲심갑섭68
▲심문규75 ▲안사균52 ▲안상경58
▲오상훈74 ▲오수국74 ▲오인환61
▲오현승69 ▲우병규55 ▲유 영70
▲유세희62 ▲유시명72 ▲유종상70
▲유홍선60 ▲윤홍로60 ▲이 랑64
▲이 진64 ▲이규일57 ▲이동년67
▲이민호62 ▲이백규72 ▲이봉원57
▲이수우52 ▲이신복60 ▲이영록54
▲이정길63 ▲이정순68 ▲이정훈57
▲임 흥72 ▲임인주63 ▲장석준68
▲장충석74 ▲전봉운64 ▲정구훈70
▲정규용64 ▲정기호57 ▲정낙삼67
▲정서웅66 ▲정운택49 ▲조성만74
▲조원홍73 ▲조재신64 ▲황병무64
▲황정식57

◇美術大學

▲계동훈63 ▲권달술66 ▲김규봉93
▲김덕용88 ▲김동선92 ▲김병중81
▲김병중81 ▲김현진97 ▲김호용89
▲남상이97 ▲박선후95 ▲박수현94
▲박양자68 ▲박영근88 ▲박현일96
▲변대성59 ▲서동수95 ▲서원영92
▲이명재80 ▲이용국65 ▲이주숙74
▲장금원71 ▲전수진96 ▲정상원64
▲정한술91 ▲정형택60 ▲최선동52
▲함인화73

◇法科大學

▲강재현84 ▲곽동호69 ▲곽윤직51
▲구남수85 ▲권병현63 ▲김 신80

▲김경태88 ▲김광석67 ▲김광조64
▲김명진78 ▲김선혜77 ▲김성환76
▲김세진80 ▲김영재92 ▲김영철78
▲김용각43 ▲김용덕80 ▲김윤기79
▲김인승54 ▲김재후57 ▲김정득61
▲김정보71 ▲김정섭70 ▲김주홍39
▲김준교87 ▲김준호56 ▲김진국86
▲김진모61 ▲김진영89 ▲김철자63
▲문경화98 ▲문종수63 ▲문해성63
▲박 웅90 ▲박건우61 ▲박영철86
▲박재윤88 ▲박종현94 ▲박진순64
▲박한우89 ▲백운철69 ▲변선종82
▲사부성65 ▲서상원61 ▲서영화84
▲신수길61 ▲신현목70 ▲안영무65
▲양형진64 ▲염인섭67 ▲오승종81
▲우영화66 ▲원유석84 ▲유경희69
▲유병욱83 ▲유순현52 ▲윤준원71
▲이 립86 ▲이규완57 ▲이근병83
▲이근식47 ▲이근원60 ▲이동진72
▲이만호69 ▲이상훈78 ▲이승용64
▲이우근71 ▲이원배56 ▲이재권97
▲이재홍78 ▲이전오81 ▲이준보80
▲이태일68 ▲이흥훈69 ▲장재홍73
▲장홍덕65 ▲전성호60 ▲전재기62
▲정 창65 ▲정상익88 ▲정상학60
▲정용달85 ▲정창호89 ▲조원철65
▲조종환94 ▲지귀연98 ▲천인수63
▲최낙현68 ▲최영훈83 ▲최인룡65
▲최종모87 ▲한영희55 ▲호영진60
▲홍병의64 ▲황규련66 ▲황선무64
▲황윤주57

◇師範大學

▲강송식64 ▲강일선72 ▲고재석83
▲구준희60 ▲권태원67 ▲권택홍72
▲금승호64 ▲김경자75 ▲김광웅64
▲김길중52 ▲김덕빈49 ▲김덕호73
▲김병무68 ▲김상철72 ▲김선진81
▲김순식60 ▲김영석68 ▲김영자63
▲김옥성43 ▲김인목76 ▲김인중76
▲김장천72 ▲김종식77 ▲김종오64
▲김진영69 ▲김진철72 ▲김진후78
▲김창규62 ▲김지경64 ▲김판금68
▲김풍자68 ▲김해조94 ▲김화룡72
▲나도성79 ▲나태식73 ▲노은욱92
▲민영업60 ▲민용기56 ▲박병기65
▲박상웅63 ▲박영덕53 ▲박영민66
▲박영호69 ▲박정일64 ▲백남수45
▲변범식63 ▲서재형92 ▲성봉주89
▲손종호97 ▲송종홍64 ▲송형석85
▲신 훈71 ▲신부철61 ▲신재철73
▲신정식54 ▲신정목65 ▲안대영87
▲오창훈90 ▲오피스96 ▲유관현62
▲유성렬69 ▲윤숙정66 ▲이계산79
▲이광숙70 ▲이대규61 ▲이덕환57
▲이무일70 ▲이배희55 ▲이승우66
▲이영선75 ▲이재홍78 ▲이종원57
▲이종진77 ▲이종철80 ▲이준형77
▲이한규70 ▲이희환61 ▲장상근55
▲장선식64 ▲장준호56 ▲장효원41
▲전대천80 ▲전만길66 ▲전성진59
▲정종환82 ▲조명오85 ▲조형우84
▲최명욱71 ▲최병호61 ▲최선집79
▲최용섭58 ▲최종욱58 ▲최종학64
▲추병수88 ▲한기호73 ▲허덕수67
▲홍갑표63 ▲황만익63

◇商科大學

▲구본영70 ▲권현무66 ▲김동식65
▲김석룡71 ▲김선용72 ▲김승경59
▲김영건66 ▲김인호65 ▲김정현63
▲김주남54 ▲김진기72 ▲김진주66
▲박성준60 ▲박용대63 ▲박용선56
▲변형운51 ▲서정도70 ▲성덕경72
▲손태일72 ▲송필호72 ▲신광규59

▲안기봉62 ▲안익수57 ▲염재현69
▲우홍식51 ▲유병민74 ▲윤호중56
▲이병대65 ▲이병주71 ▲이성희48
▲이순철69 ▲이연수68 ▲이재욱69
▲이정규48 ▲이호우58 ▲이호철61
▲장기선73 ▲전영기69 ▲정기영71
▲정대서75 ▲정윤영62 ▲차태균75
▲천제혁63 ▲최진석62

◇生活科學大學

▲고희정91 ▲공경옥66 ▲김복희75
▲김경희65 ▲김옥순61 ▲김정원64
▲김혜경72 ▲박근주67 ▲박순이74
▲박인영89 ▲송지현61 ▲신의희84
▲안영희61 ▲안혜준81 ▲윤명숙71
▲이 옥76 ▲이봉욱60 ▲이정원72
▲임경숙80 ▲정지숙66 ▲한인욱60
▲한호경74

◇獸醫科大學

▲고영규82 ▲권희동78 ▲박수원91
▲송화락74 ▲신대길67 ▲유문상92
▲유한상82 ▲이강훈64 ▲이병익78
▲정동혁83 ▲정창국51

◇藥學大學

▲강 건66 ▲강대홍55 ▲고창범86
▲곽의종77 ▲김경희66 ▲김근환68
▲김성모79 ▲김승두55 ▲김승한80
▲김용수80 ▲김정훈96 ▲김희경86
▲도상복65 ▲박종우56 ▲박태동85
▲백승엽88 ▲서재균63 ▲성태현74
▲신국현62 ▲심규장74 ▲심우원76
▲오경선55 ▲오명근67 ▲우제안61
▲이갑희67 ▲이용선57 ▲이인순74
▲이재철76 ▲이대욱67 ▲이해운68
▲이현실94 ▲임창모68 ▲정승혜97
▲정옥자87 ▲지덕식49 ▲차기현64
▲최건학74 ▲최경명76 ▲최은사77
▲편장범64 ▲한병현61

◇音樂大學

▲김동수80 ▲김명숙73 ▲김셋별71
▲김성국74 ▲김성남51 ▲김수진87
▲김승민73 ▲김용길64 ▲김은경61
▲목원수77 ▲문용숙79 ▲박신애61
▲박지선88 ▲박현선60 ▲박혜정81
▲서경선64 ▲서정실75 ▲여희구95
▲염각경58 ▲오진희64 ▲유은숙97
▲윤의중87 ▲윤혜원65 ▲이 상94
▲이가영93 ▲이건희66 ▲이광민72
▲이단렬67 ▲이민지92 ▲이소정90
▲이연자63 ▲이자경65 ▲이주경74
▲이창수71 ▲이춘우80 ▲이훈복52
▲임자향66 ▲임현숙88 ▲장원석66
▲정락복61 ▲정미향85 ▲조명희69
▲조주연93 ▲최보금69 ▲최서희84
▲최순복86 ▲최영호72 ▲최윤규70
▲최해준73 ▲추승욱72

◇醫科大學

▲강왕직61 ▲김석용82 ▲김수태52
▲김재윤85 ▲김진천80 ▲김필수82
▲문상은86 ▲문희범78 ▲박경주82
▲박경찬80 ▲박국양81 ▲박정국56
▲박종명76 ▲박태동78 ▲성용기64
▲신상철63 ▲안광필73 ▲양영승88
▲오명돈83 ▲우영남67 ▲윤대영76
▲이도희84 ▲이병운61 ▲이선호55
▲이영철63 ▲이원기62 ▲이정수80
▲이준희61 ▲임승운80 ▲임정규95
▲장선택62 ▲장성호72 ▲전동수50
▲전형식81 ▲정영화81 ▲정중희84
▲조병제76 ▲조용근83 ▲차창룡89
▲최 현80 ▲최진영65 ▲하우승77

▲허 준89 ▲홍성문47 ▲홍정곤81
▲홍해걸91

◇齒科大學

▲강나라96 ▲강신우83 ▲강정모86
▲김건모72 ▲김만석60 ▲김용상67
▲김진수61 ▲김창집87 ▲김창희68
▲김희철83 ▲류수인89 ▲박재간85
▲박진환55 ▲박충서70 ▲변기정71
▲서장석58 ▲손오영58 ▲송광엽81
▲양문섭84 ▲우선형51 ▲유양석49
▲유현호60 ▲윤상룡85 ▲이기형57
▲이승종75 ▲이영철78 ▲이승렬58
▲이형순73 ▲임윤식80 ▲장도훈76
▲정광조89 ▲정박민65 ▲조병훈84
▲채운필86 ▲최동광69 ▲최종호74
▲한광희72 ▲한성동57 ▲한영복62

◇大學院

▲김명찬92 ▲김승부82 ▲김재순87
▲김종수84 ▲김종일85 ▲김한호86
▲박진수98 ▲송상호93 ▲유형중86
▲이남규89 ▲이명숙80 ▲이명호78
▲이용욱78 ▲이태동88 ▲임동규65
▲임채열98 ▲정기성80 ▲조재훈86
▲주형돈57 ▲최천석77 ▲최현우88
▲최희진90 ▲허도학83 ▲홍종각86

◇經營大學院

▲김성준94 ▲성병찬90 ▲송희준96
▲지현열92 ▲최원영95

◇保健大學院

▲김대규66 ▲김학기76 ▲두재균82
▲민병찬77 ▲박승보68 ▲조춘국87

◇司法大學院

▲김성기64 ▲김인섭63 ▲박종택63
▲이원형64 ▲이익우77

◇行政大學院

▲김성일89 ▲김재우84 ▲김종성83
▲박상돈87 ▲백낙준64 ▲서일수69
▲오동호88 ▲임병수87 ▲장인태87
▲정동준67 ▲진익철83 ▲채희성71

◇環境大學院

▲강덕원87 ▲김경영81 ▲사광호상91
▲서상국87 ▲송장복79 ▲우병규76
▲이규환77 ▲임영호91 ▲전상훈86
▲황지현76

◇최고경영자과정

▲강진경43 ▲권석우15 ▲권오철41
▲김규성44 ▲김병곤41 ▲김병국51
▲김성규29 ▲김승유19 ▲김영철12
▲김영훈49 ▲김재정52 ▲김정국14
▲김준호38 ▲김중구25 ▲김춘길32
▲김한성38 ▲문창복52 ▲박 찬48

▲박병제43 ▲박석휘52 ▲박윤소26
▲박인준38 ▲박창호45 ▲박현수36
▲박형미52 ▲배승엽50 ▲서종덕12
▲송보열21 ▲신문범23 ▲오세창41
▲오순택30 ▲오일랑30 ▲유명화36
▲유양수13 ▲이건영18 ▲이기종43
▲이대봉36 ▲이민기8 ▲이성균51
▲이영덕46 ▲이영환52 ▲이원표47
▲이정식16 ▲이현국13 ▲이희림6
▲임완수36 ▲장성환4 ▲장희정25
▲전상배42 ▲정덕용21 ▲조광호24
▲채수삼39 ▲한용외39 ▲한원교16
▲허필수49 ▲홍연석6 ▲황 영39
▲황기연52

◇최고산업전락과정

▲권영후1 ▲김경태26 ▲김재연21
▲김진원26 ▲노규식25 ▲노원구18
▲박무영7 ▲송기숙23 ▲이상원19
▲이종대6 ▲이창섭21 ▲이태화16
▲임승수12 ▲전임현5 ▲정승일9
▲채수만9 ▲최우성문10 ▲최재영11
▲한순모24 ▲황능웅11

◇국가정책과정

▲김성은30 ▲김장환49 ▲김재현50
▲김정웅31 ▲김철환46 ▲김호연11
▲김홍근11 ▲박기철39 ▲박성국51
▲오성균18 ▲이강희30 ▲이문용27
▲이수용34 ▲이재돈28 ▲이종채52
▲장호경27 ▲정진호46

◇고급금융과정

▲김원현6 ▲김윤태15 ▲송영규9
▲이 명8 ▲이대근12 ▲허 영14
▲황용창11

분 담 금

◇중외제약지부

구분암 권 용 권희안 김미희
김병진 김선미 김수영 김종민
김지배 김학엽 남웅현 류주열
문정만 서동철 서형식 오세웅
유홍기 윤동기 이기호 이원일
이종섭 조남춘 최상호 최승호
최학배 함은경

합 계 : 59,448,680원
입회비 : 70,000원
총 계 : 646,157,922원

(지면관계로 도시환경교위정책과
정·가정간호수습과정·공기업고급
경영자과정·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
자과정·해양정책최고과정·정보통
신방송정책과정 회비 납부하신 분
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2년 11월 발금 회원 명단)

개 인

▲이강인90 ▲이상철92

◇師範大學
▲한예석62

◇醫科大學
▲최승순80

◇大學院
▲김윤성84

◇人文大學
▲송원용96

◇社會科學大學
▲양승봉94

◇農業生命科學大學

동문의 소리

국론 모아 「東海」를 「靑海」라고 하자

徐康和(74년 新大院卒)대한언론인회 전문위원



「東海」명칭 회복운동은 현실 진단이 잘못된 戰略인듯하다. 「日本海」가 제국주의 냄새나는 이름이라 우리가 용납 못하는 바이나, 그 代案인 「東海」 또한 한국본위인 相對명칭이라서 객관성이 약하다. 일본측이 볼 때는 西海이니. 응낙할 리 없다.

易地思之는 필요한 슬기다. 상대는 멀리 1920년대에 식민정책이 施行되던 때에 취득한 기득권이다. 후안무치한 일본은 이미 80년간의 국제 관행이 쌓였다는 取得 時效성을 내세워, 지금의 변경은 국제적 혼란을 야기한다

는 구실로 「日本海」유지를 我執하고 있다. 「세계수로기구」란 국제기구가 國위도 主見도 없이 일단 결정 공포했던 동해 併記조차 취소 원상복구한 것은 일본의 비위 맞추는 꼴이다.

민족지 조선일보가 연말 2개월동안 동서 古지도에 해도를 展示함으로써 내외에 대해 「일본해」의 부당함을 규탄, 천명했다. 그 전시야말로 日人 지식층이 계몽받게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심정으로야 1794년 영국발 간해도의 「Corean Sea」와 1871년 일본판 「地球萬國方圖」

의 「朝鮮海」를 근거로, 기필코 「조선해」를 관철해야 마땅하다. 하나 그것은 역사의 뒀안길이고, 現實은 유권執行 여건이 이미 好機逸失해버린 遺憾속이다. 광복직후, 일본이 美 군정 하에 눌러있었을 때, 개체해 버렸어야 했다. 우리의 晚覺은 그뿐 아니다. 「헌해탄」 「大和堆」를 이날까지 우리가 膾炙해왔고, 대한해협의 난류는 일찍이 일본이 「黑潮(쿠로시오)」라는 국제 공인까지 획득했다.

지금에 돌아봐도 UN도 방관 태도이고, 러시아조차 간여하기

저어하니, 한·일 양 당사국이 타협하는 길 밖에 없다.

이제는 분쟁일소란 명분으로, 양국은 과거 모든 緣由와 先入主를 깨끗이 단념 청산하고, 전혀 객관적 새이름 정립으로 타협하기를 모색하자. 「일본해」를 말살하는데는 이 길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西海가 「黃海」이니, 동해는 「靑海」로 이름하자고 제안하자. 동해는 깊고 紺靑색이 특징이니 명분도 선다.

다만 우리끼리 신라 장보고의 靑海鎮을 상기하며, 청색은 五行色에서 동쪽을 상징하니 「동

해」의 연유도 있음을 속직적으로 自慰하자. 또 세계에는 「홍해」나 「黑河」란 명칭도 있는 만큼 「靑海」이름에 대해서야 일본도 굳이 反旗를 까닭은 없으리라. 따라서 IHO도 中立的 裁決할 수 있다.

일방적 침공으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전리품」이란 欺瞞명분으로 안 돌려주는 프랑스의 태도돌변에서 우리는 기득권이란 괴물의 위력을 신물나도록 맛보지 않았던가?

감사 표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李芝暎(93년 音大卒)국악신문 편집부 기자



대학 졸업반 무렵 전공인 국악이론에서 방향전환을 하여 10년 동안 소리를 해오던 나는 작년부터 「국악신문」이란 곳에서 기자노릇을 하게 된 햇병아리 기자다. 서울대를 나왔다느니 유만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사장에게 인정받아 생각지도 못했던 기자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글을 써 본 후에는 활자화된 모든 글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잘 썼든지 못 썼든지, 길든지 짧든지 간에 행간마다 숨어있는 글쓴이의 고통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신문사에서 내가 맡은 부분은 주로 인물 기사인데 어릴 때부

터 남의 인생 얘기를 듣기 좋아했던 때문인지 인터뷰하는 자체는 처음부터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도 쉽지 않았다. 말하는 것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이다.

이런 「산고의 고통」 끝에 나온 글들이 다른 이의 칭찬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고민과 사색의 시간이 길었던 것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사실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이 무슨 칭찬이나 감사를 바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짧은 보도기사 하나에도 보내주는 감

사의 전화 한 통은 마감 시간까지 겪었던 그 공포스러움(?)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게 함은 물론이요, 기자로서 내 능력에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게 하며 그 고통스런 글쓰기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있다. 물론 기사의 생명은 사실성과 정확성이나, 감사의 말처럼 별 거 아닌 실수를 가지고 무조건 따지기부터 할 때는—프로다운 생각이 아닐지 모르지만—그 사람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X표를 갖게 돼 다시는 기사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 일지라도.

신문사에 들어온 후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감사의 표현에 인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나 역시 이제까지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하기보다 상대방도 알겠거니, 내 마음 같으려니 그렇게 지나간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다. 가까운 사이에선 더 그랬던 것 같다.

얼마 전 어떤 행사장에서 지금은 교수님이 되신 대학교 때 조교를 만나게 돼 대학교 때 받았던 장학금에 대해—서울대 발전기금 장학금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 분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하는 내게

감동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매우 기뻐다.

감사의 표현을 습관으로 갖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다. 특히 공기처럼 그 배움을 당연시했던 사람들에게 말이다. 세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고마웠던 분들에게 일일이 선물은 못 드려도 카드로라도,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E-mail이라도, 하다 못 해 휴대폰 문자라도 날려야겠다.

아침의 여유로움과 밤의 괴로움

金兌權(02년 人文大卒)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최근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3년의 회사생활을 접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집에서 멀기는 하지만 버스 타기 좋은 위치에 원룸을 잡아 작업실이라 부르며, 출·퇴근도 없이 그러다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은 4층이라 참 아래 제법 유명한 회사의 사옥이 내려다보인다. 오전 8시 젊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정문에 몰리기 시작한다. 8시 30분에는 승용차들이 줄을 이어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으며, 40분쯤 되면

사람과 차도 뜰해지고 다만 가끔 한 명씩 헬레벌떡 넘어질 듯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 가엽게도 필시 지각한 것이라—뜨끈한 차 한 잔을 들고나는 출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생활, 마치 이런 여유를 위해 회사를 그만 둔 듯도 싶다는 생각에 그 모습을 관조하고 있다. 「그림 그리기 정말 잘 했어」라는 생각에 나는 혼자 우쭐해져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저 갈 즈음이면 마음이 무거워져온다. 오후 6~7시부터 삼삼오오 회사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

러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감에 맞춰 그림을 넣기 전에는, 나는 쉴 수가 없는 것이다. 건넌방의 TV 소리도 찾아들고(방음이 안 되는 원룸이다), 참 너머 사옥의 불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창 밖 어둠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머리털이 거꾸로 곤두서는 것 같다.

내가 하는 일 덕분에 아침에 행복했던 것인데, 그 일 탓에 밤에 괴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단 아침과 밤만이 아니라, 무언가 나의 옛날 회사 생활보다 좋은 점이 있다 싶은 부

분은 꼭 회사 생활보다 고약한 점도 생기고야 만다. 주위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한번쯤은 익히 들었을 법한 깨달음인데, 요즘 겪어보니 무척 새롭기만 하다. 아침·저녁으로 이렇듯 일 희일비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참 우습기까지 하다. 「인간으로서의 그릇이 아직 너무 작은 탓이겠지」라며 스스로 위로를 하고 만다.

일의 성격상 전시회·그림책·만화 신간을 보는 것 역시 업무의 연장이다. 최근 본 만화책에 이런 대사가 있다.

「당신들은 이런 일들을 겪고

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라는 물음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은 모두 낯설고 같습니다. 낯씨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지요」라고 답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젊은 나에게 너무 까마득하기만 한 경지임에 분명하다. 당장 得道할 엄두도 나지 않거니와 그럴 방법도 없다. 지금은 각박하여 살이 떨리는 밤에, 아침의 여유를 기억해내려고 애써보는 정도이다.